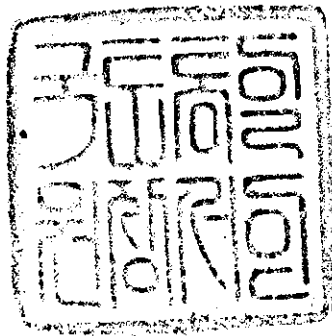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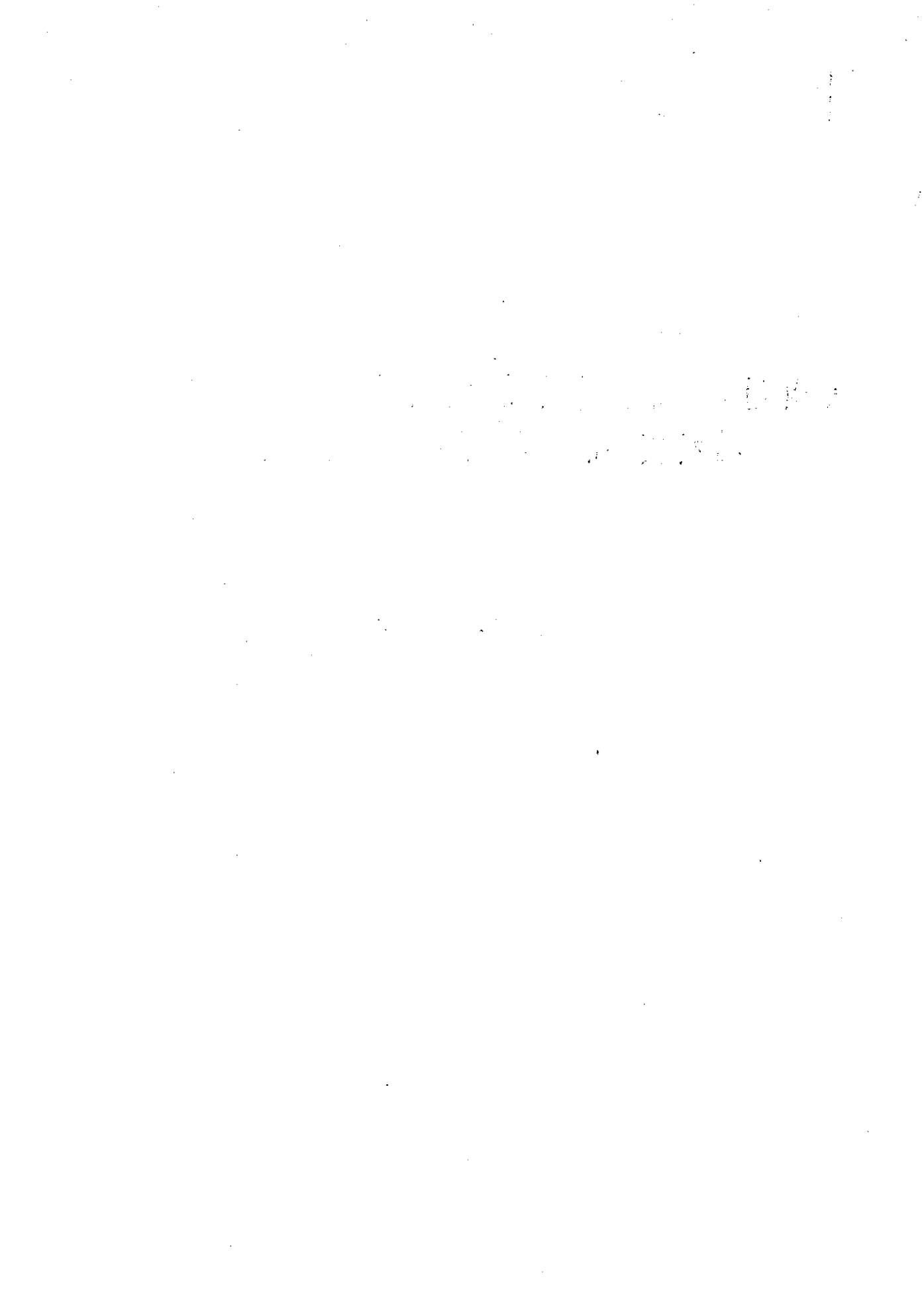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처한 한국의 방송
체제 및 내용의 구조적 개편방안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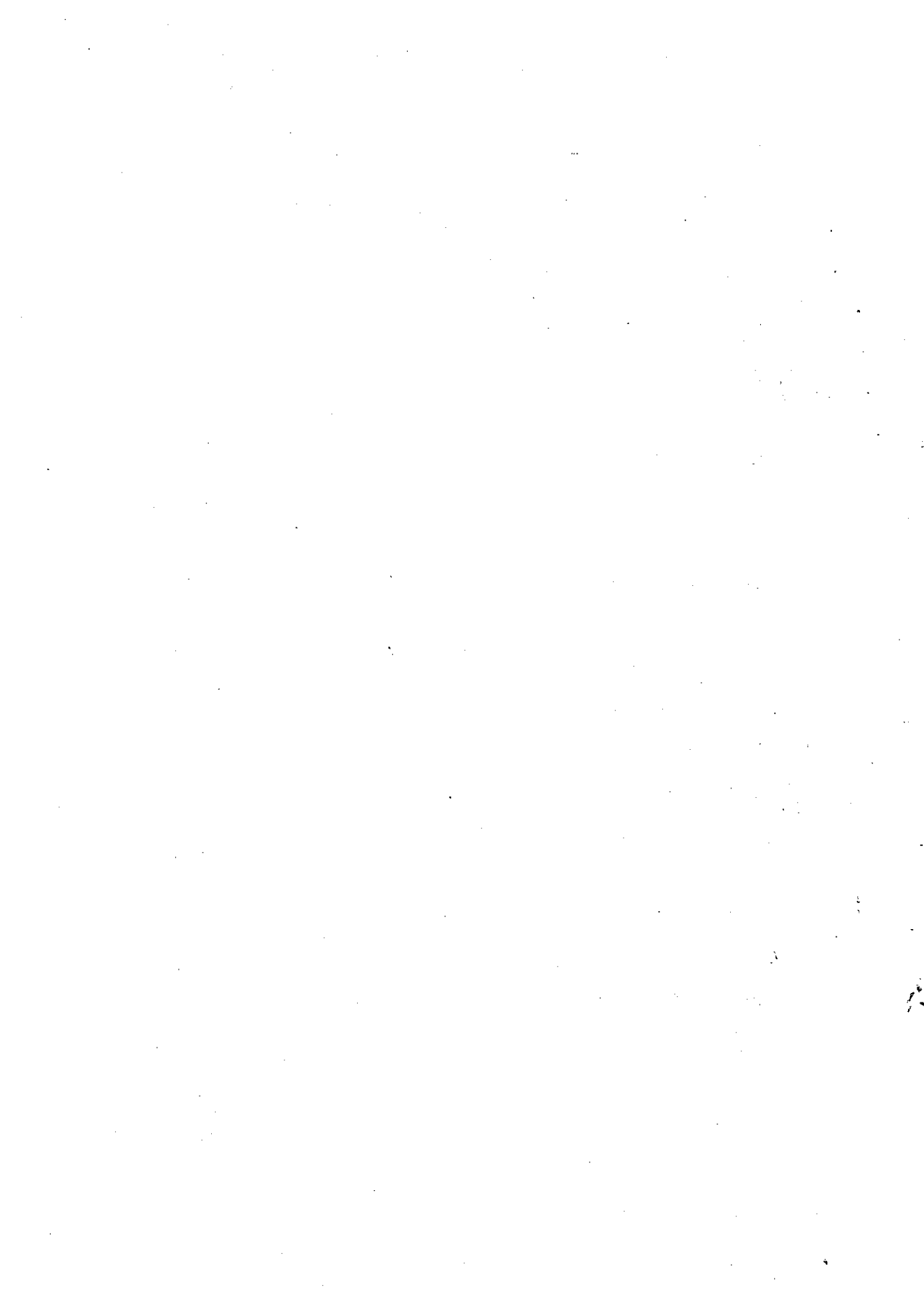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73년 월 일

중 앙 일 보 사 부 설
동 서 문 제 연 구 소

目 次

一. 序 論	1
二. 政治宣傳 도구로서의 방송 (一般論)	5
가. 共產主義와 放送	5
나. 全體主義와 放送	14
다. 反對소 鬭爭	17
라. 軍國主義	19
三. 北韓의 對南放送	23
1. 北韓放送의 歷史와 現況	23
2. 北韓放送의 特性	28
3. 最近의 對南放送의 傾向變化	35
4. 10.28 金日成演說 以後의 논조 變化	49
四. 우리 放送體制와 機能	57
1. 歷史的 背景	57
2. 放送體制의 特性	59
3. 韓國放送公社의 問題點	62
4. 우리 放送體制와 外國과의 比較	65
5. 우리 放送의 內容	70
五. 戰略的 改編方法	73



一. 序 論

国土가 38線으로 양단되고 교통, 문통이 두절된 以後 南北間의 정보전달의 方法은 通常의으로는 電波를 通하는 路밖에 없었다는 點을 새삼 指摘할 必要가 없겠다 이와같은 事情은 休戰이 成立되고 人的, 物的 交流가 전무하게된 이후 부터는 더욱 그러하였다. 電波메디어가 가지는 정보전달의 直時性的 觀點에서 보면 南北間의 連結은 電波메디어 밖에는 없다는 事實이 엄청난 重要性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電波메디어가 漸次로 政治선전의 도구로 化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분단된 韓國의 奇蹟이 없는 宿命이었다. 우선 電波메디어가 단순한 보도수단의 範圍를 넘어서 政治선전 및 모략의 수단으로 變貌하게 되는것은 6·25 直前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0年 6月 3日 平壤放送은 「祖國平和統一호소문」에 530萬名이 서명했다고 主張하고 5日에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 이에 대한 基本方針을 採択했다고 하였고 7日에는 同年 8月 5日부터 同 8日까지의 사이에 統一政府樹立을 위한 南北總選舉를 實施하기 위해서 개성에서 「南北政黨·社會團體代表者會議」를 열자고 提議했고, 다음날인 8日에는 10日에 「平和統一호소문」을 光州에서 전달할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放送했고, 이날 「조국전선」代表들이 모두 光州에서 남하歸順하자 15日에는 조만식先生과 그 영식과 우리 側에 체포되어 있는 南朝鮮總責 김삼용 이주하와 교환하자고 하면

서 25日 새벽 4時에 38線全域에서 對南總攻撃을 한것은 이미 歷史의 事實로 되었지만, 이동안 放送이 얼마만큼 그들의 南侵計劃을 은폐하는데 利用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事態의 本質은 4半世紀가 지난 지금에도 別로 다른바 없다. 오히려 放送技術의 發達과 放送內容과 編成의 進歩는 放送이 단순한 政治宣傳의 性格에서 對南侵透의 성격에 까지 發展하고 있다. 이제는 間接侵略의 最前線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 電波미디어이다.

政治鬭爭에서나 戰爭에 있어서 放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對象地域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直接的으로 말을 던져주고 선동하고 行動指針과 암시를 줌으로 해서 目的達成에 이바지하게 하는 方法은 現代에 있어서는 特別히 한나라의 戰略戰術遂行過程에 있어서 技術的으로 不可欠한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 점은 特別히 공간적으로 分斷되어서 政治的으로 對立하고 있는 分斷國이나 國家와 國家 사이의 政治宣傳, 情報伝達의 手段으로서는 電波미디어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일 때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으로 우리 代表團이 평양에 갔을때 라디오는 물론 寫眞과 TV에 의한 現場紹介는 情報伝達의 차원을 聽取에서 시청각의 차원에 까지 上昇시킨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將次 分斷 상태에 있는 南北關係가 雙方의 TV放送技術의 發展으로 새로운 領域이 發生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으면서도 現在로는 라디오에 의한 放送이 南北關係에서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다.

라디오放送이 南北關係를 저울질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바로미터라 할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72.11.4) 相互비방을 中止할것에 合意함으로써 1972年 11月 11日 ○時를 期해서 對北放送, 對南放送이 共히 放送을 中止한 事實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28 김영주성명으로써 南北關係가 惡化함과 同時에 對南放送의 논조가 과격하게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放送의 內容은 바로 南北關係의 성격을 그대로 即刻的으로 表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國家間이나 교전국사이엔 相對方의 放送에 비상한 신경을 쓰는 것이며 여기서 자기의 運命을 決定할 重要한 뉴-스를 얻게되는 것이다. 그것은 同時에 相對方에 對한 情報提供 암시가 相對方에 對해서도 같은 效果를 가져오는 것이다. 現代戰爭의 樣相이 총제전의 성격 을 뒤고 있다고 하지 마는 電波戰은 가장 첨단을 건는 「言語의 戰爭」인 것이다. 그런데 이 言語의 戰爭에서 진다는 것은 다른 여러 戰爭의 側面 - 例컨데 무력面, 經濟面 - 에 못지 않을 程度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言語의 戰爭에서 의 패배는 그 效果가 一般的이며 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物質的 인 것이 아니면서도 人口集團 - 社會民族 의 統合을 不可能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二. 政治宣傳道具로서의 放送 (一般論)

歴史的 背景

가. 共産主義와 放送

소련 :

볼레비키運動은 宣傳과 宣傳에서 始作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中에서도 레-닌은 宣傳의 最上의 手段은 新聞이라고 봤던것은 事實이며 레-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크라」誌가 發刊된 것은 바로 그것을 證明해 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라디오는 종지와 거리를 가지지 않는 新聞」이라고 한것은 宣傳방법의 技術發展을 適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政治鬭爭에 있어서 라디오가 新聞, 口頭宣傳과 같이 革命達成의 最重要手段으로서 간주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放送施設과 體制 및 運營의 처음부터 볼레비키中央委員會宣傳宣傳부의 統制 밑에 있는 것이다. 라디오는 처음부터 共産主義의 社會建設에 있어서 大衆의 教師, 案内者, 指導者의 役割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에 大衆에게 娛樂과 慰安을 提供하는 手段으로서 取扱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디오는 어디까지나 共産主義教育의 道具이며 黨과 大衆사이의 커뮤니케이션 通路로서 또는 黨이 國家目的을 위해서 大衆을 動員하는 「傳導帶」로 規定되어 온 것이다.

라디오放送技術이 發達되지 못했던 10月革命當時는 라디오放送이 프로레타리아트革命에 動員된 흔적은 別로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소련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방송을 始作한것은 革命後 5년이 지난 1922年 9月 17日이었다. 12KW의 모스크바의 방송은 그 當時 世界에서 가장 強力한 放送局이었다고 하며 이것은 英國과 佛蘭서보다는 2~3個月 앞선 것이라는 評價가 있을 程度 (다. 1).

그後 1924年 1月 人民委員會議에서 「라디오放送株式会社」를 労働組合과 公共教育當局과의 合資로서 設立했고, 同年 10月 21日 모스크바 労働組合評議會文化部가 運營하는 「소코루니첸스카放送局」이 방송을 始作했다. 이것은 소련에서의 最初의 組織的 라디오放送이라 할 수 있고 1925年에 와서는 모스크바 시내에 50台的 有線스피커가 設置되었다고 한다. 라디오방송은 漸次로 소련當局者들에 의해서 그 重要性이 認定되어 1933年 1月 31日 法令에 의해서 소비에트同盟人民委員會 傘下에 全國 라디오放送·라디오普及委員會가 設置되고 同年 11月 21日 法規에서는 그 機能을 規定하고 「地球中心地나 機械, 트럭터-스테이션등에 있는 하급라디오放送중계소의 방송을 包含해서 소비에트에 있어서의 라디오방송의 組織, 計劃, 活動指導」을 担当할것 定함으로서 本格的인 全國的 規模의 放送體制 事業을 始作했다.

全同盟라디오委員會 (BPK)는 局課 其他와 委員會의 統制를 받은 行政單位에서 運營되게 되어 있으며, 라디오委員會의 直接統制 밑에 中央放送管理局이 있어 여기서 放送業務의 實務를 担当하고 있다. 여기서 放送되는 것은 中央放送 또는 全同盟放送이라고 하며 全國

註 1) A. Inkel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日訳, 15章 放送管理에서 参考

을 放送對象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마는 라디오委員會自体는 關係會議의 直接 監督下에 있고 關係會議의 政策決定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實質的인 機能은 部에 該當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委員會는 黨에 對해서도 종속關係를 가지므로서 黨의 統制를 받게 되어 있다. 라디오委員會의 權力構造上的 位置는 바로 黨에 의한 統制關係에서 엿볼수 있는데, 여기서 그 特徵을 살펴본다는 것은 바로 라디오放送이 共產國家內에서의 重要要素를 말해 주는 일면도 될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B P K 는 黨의 指令을 遂行하고 그 結果를 黨에 의해서 비판받게 되어 있다. 例컨대 1947年 黨은 B P K에 對해서 命令者의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不足하다고 認定되면 黨은 B P K內에서 統制에 責任을 질수 있는 地位를 黨의 信任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게 하는 것이다. 例컨대 초대 B P K의장을 켈전체에프라는 古參共產黨員이 었고 50年代의 B P K의장은 전에 黨煽動宣傳部長이라는 요직을 지낸 A A 푸-진이였다는데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 R P속의 많은 放送從業員들 중에는 黨員이 많이 있어 B P K의 業務遂行을 當적立場에서 감시하고 黨에 報告하여야 하는 義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B P K가 共產黨中央委나 그 선동선전부 에 의해서 統制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地方과의 그 委員會는 當지방조직에 의해서 統制감시되고 있고, 하위단위라 할 수 있

는 라디오中繼所도 勞動組合委員會의 統制밑에 있는 것이다.

이 以外에도 라디오放送業務는 文化檢閱相의 계속적인 指揮밑에서 機能하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²⁾ 라디오放送施設擴大計劃은 1928年부터 5個年發展計劃이 連續展開되었으며 1937年에 57個국이 第3次 5個年計劃이 始作된지 2年만인 1940년에는 90個로 增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次大戰中 獨逸軍에 의해서 破壞된 소련의 放送 施設被害를 보면 出力合計 2,200KW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개전당시의 放送局施設의 半에 該當한다. 전후 1947년에 있어서는 소련에서는 100個以上の 放送局이 活動하고 있었으며 그 중 약 70個 放送局이 長波 및 中波放送局이며 1951년까지는 總計 125個의 放送局이 設置되게 되어 있었다. 소련의 放送網體制는 全國放送體制, 共和國 및 州單位體制 그리고 下級放送體制의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며 全國放送은 모스크바中央放送局이 共和國 및 州에서는 自局放送이 그리고 下級放送은 主로 라디오中繼所를 中心으로 하는 放送을 카바-하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모스크바中央放送은 第1, 第2가 全國放送을, 第3이 로-칼放送, 第4가 VHF, FM체널로 되어 있다. 그러면 現在 소련내의 라디오 受信機保有量은 얼마나 될 것인가 1965年以前의 소련의 라디오 年間生産台數를 고려하지 않고 1965~69年까지의 라디오수신기 總生産量은 31,664,000 臺로서 그후 1973年 現在까지를 平均해서

註 2) A. Inkels, 상제서, 16章以後 参照.

1969 年の生産水準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1969 年の 720 萬台를 1973 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 總計 60,460,400 臺로서 6,400 萬台以上이 있다고 할 수 있다.³⁾

2 次大戦後の自由世界가 라디오와 더불어 TV 時代에 들어온特色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그러한 움직임은 소련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70 年 7 月에 소련의 国会에서 放送担当最高責任者가 경질되고 타스通信社의 社長이었던 라-핀이 그 職을 맡게 됨으로서 종래의 閣僚會議付屬라디오, TV 放送委員會는 閣僚會議 TV 라디오放送 國家委員會로 改稱되었다는 事實은 이제 TV가 放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1971 年 3 月 蘇聯共產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은 「……新聞, 雜誌, TV, 라디오, 通信社 다시 말해서 매스콤 • 宣傳手段을 새로운 人間の 形成이라는 크고도 複雜한 일에서나 資本主義世界와의 이데오로기 - 鬪爭에 있어서 黨의 強力한 用具」라고 했던 것이다. 1965~70 사이에 實施된 TV 發展 5 個年計劃 동안 모스크바에 높이 533 m 의 타워 - 를 가진 全國 TV 센터가 完成하고 TV 는 4 個 채널로서 放送하게 되었다. TV 放送體制는 全國放送을 하는 第 1 TV, 모스크바州로 - 갈 第 2 放送, 教育學校放送인 第 3 放送, 敎養文化放送, 第 4 放送의 네가지로 分類할 수 있고 이 4 채널은 合해서 1 日 20~23 時間 放送한다. 그러나 레닌그라 - 드와 같은 大都市는

註 3) ソビエト年報, 1971 年版, 日內閣官房 內閣調査室監修, p.883 에서 計算

3 채널, 기타 70 개의 都市는 2 채널시스템이다. 소련전역에 걸쳐 現在 編成制作能力을 가진 TV 센터-는 127 局이 있고 中繼所는 약 1,000 個局이며, TV 시청인구는 전 人口의 약 70%로 되어 있다. 1971 年부터 TV 發展 第 9 次 5 個年計劃이 始作되었으며 放送 時間은 1970 年에 比해서 40% 增加했으나 이 增加分은 모두 中央放送의 프로그램으로 充當된것을 보면 中央集權的 言論統制의 傾向이 强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事實은 체코사대이후 顯著하게 나타난 현상이며 라디오나 TV 할것 없이 國民의 多樣한 사고 방식을 反映하기 보다는 國民思想의 統合이라는 그 機能을 重視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⁴⁾ 蘇聯의 TV는 불란서에서 開發된 SECOM 방식(819 주사선)이다.

中 共 :

中國의 라디오發生地는 上海였다. 그것은 半植民地의立場에 있었던 中國으로서는 各國의 商權이 얽히고 설킨 곳이 上海였기 때문이다. 1922 年 即 美國에서 世界最初의 放送이 始作된지 2 年만에 美國의 貿易商社가 商業的目的에서 50 W 의 放送局을 設置한 것이 中國大陸에서의 라디오放送의 시발이었다. 1924 年 5 월에 역시 美國貿易商社인 「開洛公司」가 上海支店에 100 W 의 放送施設을 갖추고 뉴스提供을 하다가 250 W 增加와 더불어 매일 8 時間 放

註 4) 상계서, 동상

5) 党活動の強力な用具, テレビき重視するソ連放送界, 放送文化, 東京, 1971, 8 月号, P.43-5

送을 시작한것이 그 당시로서는 中国唯一의 大規模放送이었다. 放
 送의 여러 利點은 얼마 가지 않아서 国民党的 注目的 對象이 되
 어 全國統一의 手段으로 採用되는 움직임이 있던중 1927年9月1
 日에 北平에 500 W 出力의 放送施設을 하게 된 것이다. 北伐後
 南京에 中央放送局이 設置된것이 1928年8月1日이었고 그 名称自
 体が 「中国国民党中央執行委員會廣播無線電台」로 되어 있는 것에서
 도 알수 있는것처럼 放送局自体가 党機構속에 있게 된 것이다.
 1932年11月12日 이 南京放送局은 75KW 出力으로서 東洋第一의
 放送局으로 出發하게 된 것이다. 中日戰爭의 결과 国民党治下의
 大規模放送施設은 거의 破壞 내지 電波방해로 상용불능하게 되고
 聯合軍側의 援助로 成都, 昆明 등 5個都市에서 放送을 始作했으나
 여타의 것은 거의 소형송신기를 使用한 秘密放送局의 성격이었다.
 그간에 있어서 共産党側은 거의 라디오放送方法은 技術과 資材의
 不足으로 使用되지 못하였다가 1940年末頃 延安에서 試驗放送을
 한 일은 있었으나 그것도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 2次大戰종전 直
 後인 1945年9月5日 延安에서 「延安新華人民廣播電台」가 發足하
 고 콜사인 XNCR, 出力 300~350, 編成員 1人, 아나운서 - 2인 합
 計 3人으로 出發했다고 한다. 放送時間은 1日 2時間, 內容은
 뉴스, 論評, 해방구의 소개 등이었다. 1946년에는 1日 3時間
 放送時間으로 늘렸지만은 爆擊으로 이동해서 3月19日 「陝西新華
 廣播電台」로 改稱했다. 이와같이 이동하는 곳마다 地名은 바꾸었
 으나 旧延安局은 1949年3月25日 北京入城과 더불어 「新華廣播

「電台」라는 간판을 걸게 되었으나 国民党的 北京放送局을 接受하자 「北京新華人民廣播電台」로 改稱되었다가 10月1日 中華人民共和國 成立과 더불어 「北京中央廣播電台」로 되어 今일에 이르게 되었다. 이 동안 中共軍에 의해서 接受된 放送局數는 全國에 걸쳐서 53局이었다고 하니 中共黨으로서는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⁶⁾

中共政權樹立 1個月前인 1949年9月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人民放送事業을 全國에 펼친다」는 共同테-제를 採択하고 53年부터는 第1次 5年計劃을 實施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技術的基礎」의 未發達은 急速한 受信機生産을 不可能케 했기 때문에 우선 全國的 放送事業에 큰 支障이 온것은 事實이었다. 이 難點을 克服하는 政策이 이른바 有線放送網組織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集團 聽取方法과 直結되는 것이며 部落이나 大衆討論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다. 「聽取站」이라고 하는 이러한 集團聽取方法은 1950年에서 부터 始作되었으며 1954年에 이미 聽取站用의 스피커數는 1,500萬個가 되었다고 한다. 現在로서는 라디오普及台數는 1,000萬台以上으로 推算할 수 있고 價格은 30원정도이니까 勞動者의 平均月收 70~80원이라고 하니 大개의 가정에서 購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註 6) 中國放送 前史, 放送文化, 1973.9月号, P.40-43.

7) 人民의 放送局, 放送文化, 1973.10月号, P.20-23

8) 상제서, P.23.

말 할 것도 없이 中國의 放送은 國營이며 國務院直屬의 中央人民放送
 事業局에서 運營되고 있다. 同局은 編輯, 總務, 技術部로 構成되어
 있으나 中央人民放送局, TV局, 海外라디오局은 編輯部 밑에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中國의 放送은 「人民日報」가 毛沢東思想의 教材
 라고 하면 放送은 「귀를 통한 教材」인 것이다. 다른 部門에서
 와 마찬가지로 文化革命以前에는 放送管理問題를 둘러싸고 毛路線과
 劉少奇路線으로 분열되고 있어 劉派에서는 報道의 客觀性, 國營言論
 機關의 民間移入을 主張했는데 反해서 毛沢東은 「階級이 소멸할
 때까지는 新聞, 出版, 放送通信등은 모두 階級性을 가지는 것이며
 特定階級에 奉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文化革命의 결과 1966
 年 12月에는 中央人民放送局自體가 「放送은 毛沢東思想의 宣傳機
 關이다」라고 自處하면서 「우리들 放送人은 프로레타리아트의 放送
 局을 毛沢東思想의 큰 學校로 만들기 위해서 努力해야 한다고 宣
 言할 程度였다.

放送體制를 보면 라디오는 第1, 第2의 두개의 계통이 있고 內
 容은 主로 報道, 政治, 教養프로와 文芸프로로 되어 있다. 좀 具
 體的으로 말한다면 뉴스는 하루 15회(全體放送의 13%)이며
 뉴스의 時間帶에서는 毛沢東語錄의 일절이 반드시 朗誦되는 것이
 文化革命以後의 現象이다. 毛沢東思想學習手段으로서의 라디오는 트랜
 지스터開路과 더불어 一層 普及되어가는 現象이 있다. 라디오受信
 機가 어느 程度로 普及되어 있는가는 發表된 數字는 없으나 文化
 革命初期에 약 1,000萬台였다고 한다. 트랜지스터의 가격은

100~20元사이 多数種이 量産되고 있다고 하니 산간벽지까지 普及되어가고 있는것이 事實일 것이다.

T V는 1958年 5월에 소련의 技術指導밑에서 實驗을 하고 同年 9월에 正式放送을 始作했다. 現在로는 11個의 主要都市에 T V局이 있고 18個의 中繼所가 있다.⁹⁾ 文化革命過程에서 二系統으로 放送되던 T V가 비판되고 일시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1969年頃부터는 回復되어 매일 저녁 3~4時間式 放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大學講座를 中心으로 하고 있다. T V台數는 文化革命初期에 약 10萬台라고 推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一般家庭普及은 아직도 將來 일로 보여진다. 中國에서 色彩 T V는 1973年 5月 11日에 月初부터 週四回의 實驗放送을 北京電視台(T V局)이 했다는 報道가 있었다. 同年 6월에 日本메이커에게 칼라 T V放送車 2台를 發주했고 그 方式은 西獨에서 開發한 PAL方式(625주사선)인 것이 밝혀졌다. 이 事實은 中蘇紛爭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나. 全体主義와 放送

나치즘 :

世界第1次大戰後 獨逸은 国内的으로 混亂속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소란속에서 1923年 10월에 伯林에 民間放送局이 設立된 것이 獨逸放送의 시호였다. 그後 各 大都市에서도 民間放送이 생겨났지

註 9) 상계서, 1971, 10月号 p.2~3.

10) " 1973, 9月号, p.40

마는 1925년에 와서야 半官半民의 獨逸放送協會 (R. R. G)가 創設되어 比較的 獨立的인 文化活動을 하였다. 나치獨逸의 成立은 放送이 完全한 政治宣傳의 道具로 化하는 契機가 되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마자 모든 既存 放送施設을 유태적 企業이라해서 政府에서 接受하고 그것을 國民啓蒙宣傳省 밑에 屬하는 帝國放送協會가 總括 各州의 放送会社는 모두가 이의 下部組織 Reichssender (國家放送局) 이라는 간판을 부치게 되었다. 同時에 宣傳省은 나치즘의 宣傳을 위해서 文化院을 構成하고 그것의 한 部門으로서 放送委員會를 두고서 여기서 放送事業일반을 監督指揮했다. 放送에 對한 나치즘의 態度는 1936年의 히틀러- 演說에서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는바처럼 「放送은 國家社會主義의 世界觀을 表明하는 綜合的인 全體機械이며, 放送이 내고 있는것은 그대로 國家社會主義的인 國民協同體의 政治的, 文化的, 民族的生活의 代表이며 同時에 包括的인 大衆의 要望을 最高로 表現하는것」이라고 認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放送委員會뿐만 아니라 地方의 國家放送局에 對해서는 나치 黨宣傳指導部에서는 各地區放送監理를 위해서 細胞組織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로서 放送事業은 政府·黨 그리고 實務主体인 R. R. G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遂行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黨細胞組織은 聽取者 획득에서도 活動을 폈다. 共同聽取施設, 團體聽取등을 強調하고 가두확성기를 설치하고 수신기가 있는 집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게 하고 해서 國民개청 國民필청체제가 強行되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政治技術은 그가 國民을 電波에 의해서 채면술에 거

는데에서 유감없이 發揮되었다. 라디오放送을 통해서 히트러 - 는 「半傳說的인 英雄」(잭크·드로 - 즈) 이 된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의 放送이 설교나 宣傳으로 充만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放送編成과 內容을 보면 極히 위안과 娛樂을 中心으로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例컨대 1937年7月 1年間の 全放送種目を 百分率로 보면 아래와 같다.¹¹⁾

音樂全體	68.0 %
純音樂	86.4 %
輕音樂	9.9 %
버라이어티	5.2 %
레코 - 드	6.5 %
講演, 文芸	11.0 %
時事放送	5.5 %
뉴 - 스, 告知	8.5 %
其他 (어린이時間 등)	7.0 %

이것은 國民을 언제나 라디오에 끌어 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政府와 國民의 우정을 맺겠다는 政策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뒷받침하드시 宣傳相겟벨스는 이와같은 放送內容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더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

註 11) 放送文化小史, 年表, 金沢党大即著, 1966, 東京, P.233.

가를 주는 方法이다. 그러나 2次大戦에서의 패배는 이 모든것들이 過去の 惡夢으로 남게 되었지만은 한가지 유의해야 할일은 깃벨스指揮下에 「独逸放送聴取者全国同盟」에 組織化 되었고 히틀러-의 演說을 환상적인 전파를 듣는 45萬名の 組織勢力이 있게 된 것이다. 아마 그 當時로서는 세계에서 최강의 政治的 聴取者組織이였을 것이다.

다. 反파소鬪爭 :

B B C의 경우

英国放送協會 (B B C)의 전신 英国放送会社가 1922年 11月 14日 發足한 後 昨年으로서 만 半世紀가 지났다. 에이자·브리그스教授의 「英国放送사 第3권」(말의 戰爭)에 의하면 B B C의 2차대 전중의 V 캠페인 (V for Victory Campaign)을 라디오의 特性을 살리는 戰爭武器 였다고 한다. 그것은 알파베트의 V의 모-리스 부호가 「 . . . 」임에 着眼해서 이 음을 表現하기 위해서 베-토벤의 第5交響曲 「運命」의 도입부를 利用한 것이다. 음에 의한 V사인은 1941年 6月에 始作되여서 드럼을 치는 「운명」의 도입부가 B B C의 전 유럽에 對한 放送이며 프로그램의 끝과 개개의 신호로서 常用된 것이다. V의 모-리스 부호는 삼시간에 独逸점역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연락과 격려의 신호로서도 使用되게 되었으며 独逸側도 바로 여기에 対応하는 심리작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独逸과의 개전 이래로 B B C

는 주된 報道手段으로 登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시빨리
 전쟁의 뉴-스를 듣기 위해서는 新聞에 依存하는것 보다는 라디오에
 依存하게 된것은 不可避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B B C는
 바로 정보성의 直接監督下에 놓이게 되고 放送內容의 檢閱도 받게
 되었다. 檢閱은 세가지 側面에서 行해졌는데 첫째로는 放送內容이
 政府의 戰爭遂行方針에 尙致하는가 아닌가이며, 둘째로는 방송원고 檢
 閱, 셋째로는 放送이 원고에 쓰여 있는 대로 進行 되었는지의 여부
 였다. 예컨대 放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원고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스위치는 곧 꺼야 한다는 命令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B B C는 同年 10月 15日 獨逸軍의 폭격의 직격탄을 맞는 일도 있
 었으나 이동조직으로 개편해서 國民이나 獨逸占領下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안을 주었던 것이다. 戰爭이 始作
 된後 獨逸側의 謀略放送을 避하기 위해서 B B C의 뉴-스시에는 반
 드시 아나운서-의 이름과 목소리를 記憶케 해두었다. B B C가
 얼마만큼 사람의 信賴를 받고 있었는가 하는 根拠의 하나로서 브리
 그교수의 英·獨兩國의 實際 비행기손해수와 放送을 통해서 公表된
 피해수를 比較하고 있다.¹²⁾ 그에 따르면 1940年 8月 16日~9月
 6日 사이에 獨逸은 매일 英國本土를 폭격했고 이때 喪失한 비행기
 의 실수는 英國側이 343대, 獨逸側이 527대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B B C는 英國의 損失을 292대(실수의 85%), 獨逸側은 855대

註 12) 放送文化, 1973, 2月号, P.44

(1.6 배) 라고 放送하였는데 비해서, 独逸放送은 独逸의 損失을 316 대 (60 %) , 英國의 損失을 1,114 대 (3.3배) 로 放送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는법처럼 전시나 정치鬭爭에서의 放送은 다소간 과장 허위가 있는 法이기는 하나 비교적 B B C 側이 正確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자 자체는 陸軍省에서 提供하는 것이었다는 點을 감안하면 사소한 과장은 B B C 만을 責할 수 없는 問題다. 1972年 런던에서 B B C 50週年記念行事가 있었는데 에리자베스 여왕도 「 B B C 의 전시보도는 어떠한 어두운 뉴-스라도 그냥 正直하게 報道하려고 努力했다. 이와 같은 努力은 今後라도 영원히 잊이지지 않을 것이다 」 라고 한것을 보면 B B C 가 公正했다는 事實을 전적으로 否認할 수는 없다. 勿論 전시중에 B B C 와 군부와는 사소한 알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B B C 가 그의 명성을 유지한것은 B B C 와 군부의 반 나치鬭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 軍國主義

日本의 경우¹³⁾

1924年 11月에 東京에 社団法人 東京放送局이 設立된 後 1925年 3月 1日 同 放送局이 芝浦東京高等工業学校内에서 試驗放送을 開始한 것이 日本에서의 라디오放送 실용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註 13) 放送文化小史, 年表, 동상 p. 1~49에서 要約

이로서 동년 3月22日 東京放送局 JOAK 芝浦仮放送所에서 仮放送이 220 W 出力으로 放送을 開始했다. 이로서 漸次로 放送內容의 擴張이 進行되고 同時에 全國 各 都市에서도 漸次로 放送局이 設立되었다. 1926年8月20日에는 東京 AK 大阪 BK 名古屋 CK의 合同으로 社団法人 日本放送協會 NHK가 設立되었으며 全國 라디오 聽取網化할 것을 計劃하였고 그해 라디오 受信자수는 338,204명이 었다고 한다. 日帝의 擴張과 더불어 1928年11月에는 韓半島 台灣 滿州와 東京과의 連絡放送이 개시되고 1930年에서 東京中央放送局의 新-스를 自主編輯하여 全國에 中繼하는 시스템이 짜여졌다. 特히 할일은 1931年9月19日 滿州事變第一報가 臨時 라디오 新-스로서 全國에 放送됨으로 해서 라디오가 全國 一律적으로 同時에 戰爭 新-스를 전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1932年에 들어오게 되어 이미 全國 聽取者數는 100萬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錄音放送을 始作하게 된것도 同年 11月이었다. 1935年에 聽取者數는 200萬名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른바 2.26事件(1936)때 戒嚴司令部에 의한 「병사에게 告함」이라는 포고방송을 해서 라디오放送이 新聞 報道와 다른 特徵을 나타내기도 했다. 軍부에 의한 大陸進出計劃의 進行과 더불어 라디오統制가 서서히 始作되었고 1936年 7月에는 內閣속에 情報委員會를 設置 同盟通信社를 監督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는데 이 委員會가 기초가 되어 後에 情報局으로 發展하는 것이었다. 軍국주의의 대두는 곳 放送面에서도 反映이 되어 1936年 10月29日 神戶港外觀艦式實況을 錄音放送을 하여 國民에게 지대한

인상을 남겼던 일도 있다. 1937年頃이 되면 라디오는 단연 戦争뉴스의 총아가 되며 7月8日의 中日戦争 盧溝橋事件勃發 뉴스를 放送을 했고 北京과의 定時連絡放送이 같은 날에 組織되고 뉴스해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등장했고 9日에는 「放送委員會」가 內閣안에 設置되어 戦争放送体制을 굳혀 갔다. 1938年 1月18日에는 放送局型受信機 認定制度를 制定해서 一般聽取者의 受信機能力을 制限하고 外國放送聽取를 금하는 措置를 取했다.

1940年 12月5日에는 內閣令에 있었던 情報委員會를 情報局으로 改編하고 放送事業은 內閣總理代身 齋藤實代신이 감독하기로 되었다. 이때만 해도 이미 全國의 라디오 聽取者數는 500萬이 넘어 있었다. 라디오放送이 가장 눈에 부시게 活躍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1941年 12月8日 태평양전쟁발발의 보도에서였고 개선의 臨時뉴스는 온 國民의 귀를 라디오에 고착시켰던 감이 있었다. 바로 이날 日本政府는 放送電波管理를 實施하고 東京 中央放送局 第2放送을 停止하고 出力面에서도 AK의 150KW를 10KW도 저하시키고 全國 重要放送局에서 전력저하조치를 取하면서 全國적으로 동일주파수를 實施하고 프로그램編成도 完全히 전시체제로 改編되었다. 그러는 동안 戦争도 漸次 가열되고 전파전에서도 積極的인 措置가 取해지게 되면서 1942年 7月에는 NHK 國際局이 전담해서 남태평양지역 미군에 대한 謀略放送도 實施하게 되었다. 이 放送은 「레로·아워-」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세간에 有名한 그 「東京로-즈」가 아나운서를 담당하여 미군에 대한 심리전은 일시 效果를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동년 말에 이르러서는 海外宣傳放送

로 강화되고 22個 外國語로 放送되었으며 이때에는 하루 總 65時
간의 放送時間을 記錄하게 된 것이다. 同時에 放送의 運營은 情報局
의 단독관리밑에 一層 더 國費遂行의 手段으로 發展했다. 이때에는
별서 全國 聽取者數는 330萬名을 헤아리게 되었다. 放送이 새로운
次元에서 활약하게 된것은 1944年 11月 1日 B-29에 의한 偵察
飛行이 東京에 대해서 行해질때 방공정보 제1보를 放送함으로써
라디오放送은 그 後 농습때마다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시를 전달하는
가장 크고도 유일한 手段으로 된것이다. 이로서 라디오 수신자는
일약 750萬으로 增加하게 된 것인데 종전되는데 1945年 3月에
들어가게 되면 聽取者數는 500만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그것은 폭
격으로 인한 이동과 破壞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日本政府가 重要
視하고 있었던 學校放送도 중지되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
될수 있는 일이다. 8月 15日에 라디오에 의한 天皇의 종전에
관한 宣言이 錄音放送으로 行해진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은
8月 22日부터 日氣豫報가 오랜동안의 후식후 재개됨으로서 日本의
라디오는 이제 새로운 段階에 들어선것을 상징하였다.

三. 北韓의 對南放送

1. 北韓放送의 歷史와 現況

1936年 10月에 평양에 出力 500 W의 小規模 二重放送局(韓國語放送과 日本語放送의 二重體制)가 威興二重放送局과 같이 設置된 以後 부터는 北韓地域에는 清津放送局(1937年6月5日), 威興放送局(1938年 10月) 海州放送局 및 新義州放送局(1942年 4月)들이 設置되어¹⁴⁾ 韓國사람의 라디오 聽取率은 急激히 增加의 傾向을 보였다.

1933年 2月 24日에 시작된 韓國內에서의 二重放送이 實施되기 이 전에는 全國수신기대수가 不過 8000에 불과 했던 것이 같은해 9月에는 24,000대, 1935년에는 50,000대, 1936年 평양二重放送局 設置때에는 73,000대를 헤아리게 되었다는¹⁵⁾ 사실은 二重放送體制로 韓國말放送을 한다는 자체가 라디오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내중과 해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비록 그것이 일제의 戰爭遂行을 위한 言論統制下라 할지라도 그것밖에는 정보입수의 方法이 없었을 때 였던만큼 당연한 일이다.

解放과 더불어 38線이 생기자 평양放送局은 곧 소聯軍의 管轄 밑에 들어간 것이 였지 마는 평양放送이 政治的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것은 金日成 歸國환영대회였다. 1945年 10月 14日 오후한시 모란

註 14) 방송연감, 1965, 창간호, P.31.

註 15) 방송문화, 1969, 5月号, 印雲燮, 韓國放送史, P.32.

공설운동장에서 「金日成將軍개선을 환영하는 평양市 민중대회」가 개최되었고 「평양民報」는 이大會를 보도하면서 「40萬의 환호」라고 했지만 평양의 공식 「金日成전」¹⁶⁾에 의하면 「십만이 넘는 대 군중」이 었다고 한다.

그러나 10月10 ~ 13日까지는 北朝鮮五道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가 있어 「서울中央」에서의 分立으로 成立되는 北朝鮮共產黨中央組織委員會를 創設하고 이른바 「분파주의자」들을 배제하고 北朝鮮獨立路線이 確立되었다는 事實을 감안 하면, 14日의 환영대회를 계기로 해서 평양放送의 戰爭中 감소된 出力을 500 W로 完備해서 이大會를 中繼放送하지 않을수 없는 政治的 理由를 이해할 수 있다. 勿論 평양放送局의 500 W完備과 아울러 평양放送局을 改稱하여 「朝鮮中央放送局」이라고 한것도 必然의 北韓內의 放送施設들은 基本的으로 日帝時에 設置된것을 그내로 유지 해서 6.25까지 가계된 것이다. 6.25戰爭때에는 많은 放送施設들이 爆擊으로 기능을 中止하였지만은 北韓當局은 여기에 대한 被害狀況을 統計的으로 發表한 것이 없다.

그러나 戰爭이 끝나고 바로 金日成은 「政治, 經濟, 文化的 課業을 成果 있게 遂行하기 위해서 戰爭에서 破壞된 文化宣傳기구들을 復旧 整備하고 그 事業을 개선하는데 總力을 기울여야 한다」(1953年 8月)고 하였고 여기에 따른 放送体制의 再整備가 시작

註 16) 金日成伝, 白峯著, P. 34.

된 것이다.

元來 放送事業은 革命의 主要手段이던 朝鮮 (그것은 처음부터 당에 의해서 独占되어야 할 것이었다. 北朝鮮의 新進선동이론에서 공보수단은 당에 의해서 独占되어야 하는 것이고, 朝鮮의 新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放送은 내각각속의 「中央 放送委員會」 밑에 각 「평양시 및 시도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조직 으로서는 「군·구 체신소」(中繼所)가 200 개 「리체신분소」(방송실)이 4255 개 있다. 리체신분소는 주로 유선방송중계실로서 라디오 수신기 부족을 보충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송체제는 주로 北韓의 行政体制와 평행하는 國內放送体制의 일반조직이나, 특히 北韓 當局의 對南放送体制은 이와는 분리되는 다른 體制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中央黨 對南總局 관하에 「朝鮮中央 제2放送」이 相當하며 「中央 放送委員會」와는 直接 關係가 없다. 出力 500 KW라는 強力한 「第2 放送」은 모든 對南宣傳·선동의 總本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放送은 出力 100 KW로서 국제방송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평양당국의 對外宣傳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放送의 主力은 역시 對南放送에 있으며 1970年 5月末 까지 對南放送은 제2 放送이 「南朝鮮 解放放送」이라는 이름아래서 전담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70年 6月 1日을 기해서 이른바 「동일革命黨 목소리 방송」이라는 정체를명의 방송이 접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北韓의 放送体制은 「朝鮮 中央 제1放送」 「朝鮮 中央 第2 放

送] 「国际放送」 「統一革命党 목소리 放送」 「평양 유선방송국」 (중계) 과 「평양 TV放送局」의 6개계통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제1放送」이 300 KW 出力을 가지고 对内放送을 하는데 비해서 「제2放送」이 500 KW로서 对南 放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統一革命党 목소리 방송」이 50 KW가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양 당국이 얼마나 对南 放送에 注重하고 있는 가를 알수가 있다. 거기에다 对南間諜에 对한 「지령방송」이 추가 될 수 있다.

北韓의 对南放送에 있어서 평양당국이 最大限의 선전, 선농역량을 發揮해서 그들의 「四大軍事路綫」 「平和統一」 「五大綱領」 등을 선전했고 또 하고 있는가는 수지의 사실인바 南北調節委員會 決定으로 1972年 11月11日 영시를 기해서 상호 비방을 일시 中止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오던 것이 8.28 김영수宣言으로 原狀態로 도라갔던 것이다. 이問題는 다음에 言及하기로 한다.

北韓地域에 現在 얼마나 라디오 受信機가 있으며, 聴取 能力은 얼마나 되는가.

現在 라디오 受信機 保有台數는 約 30만대로 推算되고 있으나 그 以外에도 유선방송은 175만 家戶에 設置되고 있다. 이 數는 全 家戶數의 65%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거의 전 農村住民들은 라디오유선방송을 통해서 党의 宣傳, 선동의 直接 影響圈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北韓의 라디오 生産能力은 年間 約 10만대라고 推算되어 있으니까 실지에 있어서는

保有台數는 30만대를 上廻하는 것은 確實한다. 라디오 受信機의 性能은 저급인 것은 말할 必要가 없고, 기종에 있어서도 「만경내」 「白頭山」 「농학」 등의 이름을 가진 北韓製 受信機가 圧倒的으로 많으며 外製로서는 蘇聯, 日本, 헝가리 및 中共제들이 더러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라디오 受信機는 內務省에 登錄되어야 하며 다이얼도 國內放送 주파수에 맞추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은 전화에 의한 외계의 정보를 청취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는 不可能한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1962年 3월에 人民軍內 일단의 將校들이 秘密리에 韓國放送을 청취하다 탄로되어 問題가 된 以後부터는 라디오 청취가 技術的으로 統制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 韓國放送을 들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道당위원 장급 이상의 당간부, 통신사 내 國際關係 보도관계자 그리고 대남 간섭보공작부서 인원 뿐이라고 하겠다. 여하의 사람들이 南韓放送을 들게 되어 있어, 「계1放送」의 中繼만을 들게 된다. 勿論 哈로 한시간은 地域內放送(遊信分所 또는 放送室)을 듣는것 以外에는 餘타의 選擇의 餘지가 없다. 따라서 尤선방송만큼 中失黨 및 執權者들의 意思를 일문적으로 그리고 効果的으로 民衆에 判斷준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北韓의 지배체제상 바로 金日成의 의사를 集中的으로 傳達하는 수단이 될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TV도 放送의 일종이다. 北韓에서 TV가 放送을 始作한 것은 67年 3월이 었지만은 69年 4월에 黃海中繼所가 設置, 이어 開城放送局이 開設됨으로 해서 TV電波를 서울일원에 對한 宣傳·선동의

手段으로 登場 시킨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効果를 보지못하고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現在로서는 TV 수상기는 1만대를 上廻하는 것으로 予想되나 最近에 日本에서 TV 수상세트 5만대 輸入計劃을 세우고 있고 또 北韓의 6個年計劃이 終結되는 1976년에는 年間 TV 세트 生産能力을 10만대로 計劃하고 있으니까 TV의 補給은 比較的 빠를것으로 내다 보인다.

2. 北韓放送의 特性

北韓이 1972年末 「社會主義 憲法」을 採択하기에 이른것은 南北對話 過程에 임해서 社會主義 體制를 일층 公高히 하기 위한 戰略的 指針였다. 그것은 또한 6個年 經濟計劃의 수행으로서 模範 地워지는 일임을 평양當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973年 9月 20日의 평양放送은 鄭準基와 홍성남이 豫상을 뒤엎고 7名의 副首相中에 끼게된것을 보도 하였다. 홍성남은 科學技術分野에서 從事 하던 사람으로서 6個年計劃의 社會적 차원에 對한 技術監督的 役割을 맡것임은 쉽게 豫상되지 마는 鄭準基의 등장은 선전·선농 面에서 큰 役割을 맡것은 確實하다. 그는 1962年 1月부터 勞動黨 中央委員會 宣傳선농부 부부장, 63年 4月에는 勞動新聞 責任 主筆, 64年 2月에는 朝鮮記者同盟 中央委員長, 70年 11月에는 勞動黨 中央委員, 72年末에는 最高人民會議의 第5期 代議員으로 순수

하게 宣傳선농분야에서 活躍한 經歷을 가지고 있다. 共産黨의 活動은 元來 組織과 선전선동의 2대 골격에서 이루어 진다. 勞動黨 組織指導部長 김영수에 이어 宣傳선농부장 김국태가 勞動黨을 구성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자가 勞動黨의 골격과 筋肉部分이라 할것 같으면, 後者는 裨從組織이다. 金日成도 이점은 오래전 부터 強調하고 왔지만은 이제 完備화된 勞動黨의 體制基盤 위에서 1966年 10月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組織指導部와 宣傳선농부를 「醫師와 藥劑師」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이事實은 元來 레-년에 있어서는 組織과 선전선동은 對立체적인 것으로서 政治活動(革命運動)에로 統合되어야 하는 것이였 지마는 이제는 그것이 서열화 되어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체제유지라는 目的下에서는 組織指導部가 獨立변수적 位置에서 며 선전선농부는 종속변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첫째로 이미 確立된 金日成의 지배체제는 그 方向과 이데오로거-에 관계없이 지속해야 하는 자체의 觀성을 確立했으며

둘째로는 체제지속에 必要하는 戰術的 技術(對外宣傳, 대내宣傳, 對南宣傳)은 체제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多樣化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경우에 있어서 放送은 「종이와 거리가 없는 신문」으로서, 오히려 신문이 가지지 못한 이점을 십분 發揮해서 金日成 체제의 유지와 對南 선전선동의 앞장을 서는 것이다. 방송이 가지는 直接 호소성, 동시성, 초공간성, 그리고 단편성때문에 放送은 非 論理的.

非 体系的인 면서도 그 남기는 인상은 普遍的이다.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收入과 教養의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理解할 수 있는 表現이라야 放送에 適當하다는 事實은 放送만큼 大衆呼訴力을 가진것도 없다. 그래서 北韓放送은 그 보도내용의 거이가 「朝鮮中央通信」提供의 記事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勞動新聞, 民主朝鮮其他 당기관지에서의 인용 또는 放送委員會 檢閱에 通過한 것들 뿐이다. 이와같은 技能을 하는 放送은 金日成의 政治的 立場에 따라 그 內容도 달라진다. 예컨대 金日成이가 선전선동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방송내용과 技能은 自動調整하는 것이지만은 1948年 8月에는 金日成은 當 宣傳事業을 晝스·비-년思想教養을 통일시켰는가 하면, 1955年 12月에 있었던 黨宣傳 선농 일꾼들 앞에서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主体確立을 사상사업의 主要課題라 했는가 하면, 1958年에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國際主義의 일치를, 1962年에는 黨員教養과 선농사업이 黨宣傳部의 任務라고 했는가 하면 1966年 10月에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組織과 宣傳을 意思와 藥劑師의 關係로 비유하였고 1968年에 와서는 선전선동을 「反帝 反美」과 「建設의 成果」를 宣傳선농하라고 方向이 바뀌어 지면서 71年 3月 5호担当 宣傳員 別성자대회에서는 「金日成의 敎示와 그 具現인 黨政策을 깊이 解說, 침부시키고 그들을 수령주위에 묶어 세우는」것이 선전 선농의 任務라고 規定함으로써 結局 「유일사상체제」를 宣傳선농하는 것이 선전선농의 任務라고 規定하였다. 이와같은 선전선농목적의 變化는 그간의 北韓 特히 金日成의 國內外的인 立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變化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 하는 것이 放送(특히 對南放送)이다.

여기서 라디오放送이 北韓社會에서 어떠한 機能을 하고 있는 가
를 삼각하기 위해서 프리-드릿히·T·C·유-(17)가 인도 학자
스리파티·찬도라세카-르의 「중공기행단」에서 인용한 것을 여기에
재인용 한다. 다만 중국이라는 말을 北韓이라고 수정만 하면 그대
로 분위기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北韓」부분은 필자의 가필
임을 밝혀 둔다.

인용

「이제야 北韓 全 領域은 24 時間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귀가 아슬정도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버스속에서도, 열차 안에
서도, 전차 안에서, 침대차 식당차 거리에서도 農村에서도 邑內나
都市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라디오가 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재래적인 村落에서도 나무위에 設置된 확성기가 보
인다. 太陽이나 달에서 부터 몸을 감출수는 있어도 라디오나 확성
기에서 부터는 도망 칠수가 없다> <라디오야말로 正式의 뉴-
스를 放送하는 가장 重要한 매개체다. (金日成 將軍의 노래)나
軍隊 行進曲 사이에 (6個年 計劃의 超過 達成, 세계의 우수
성, 어버이 金日成의 수채사상) 등등이 방송된다.> <나는 기차속
에서 일부러 회명을 해서 확성기밑에 달린 소켓트를 빼기 알 수

註 17) 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Edt. by Luc-
ian Pye, 日訳, P.275 ~ 277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간신히 두세 시간 조봉한 시간을 출길수 있었다. 시민들에게는 마음을 쉬게 하면서 새로운 生活을 반성할 조용한 時間이라는 조급도 없다>.

이상은 좀 과대한 表現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은 事實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선방송의 철저화를 의미하고 있다. 전체 가호의 65%가 유선방송화 되어 있다는 事實은 一般住民이 宣傳선동면에서 組織化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군단위이하의 下部組織으로서는 職場單位 및 農村의 作業班 單位에서는 선동원이 있고 이 協同農場 또는 作業班 別로 「金日成 革命歷史 研究室」(民主宣傳室)이 있고 職場과 協同 農場에는 勞動通信員이 있고, 그外에서 青年기동 宣傳隊, 5호担当 宣傳員¹⁸⁾이 있어 何處에서 모두 「中央放送」이나 「평양放送」과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放送들은 바로 「唯一思想」전달의 원천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本質은 무엇인가?

한마디로해서 그것은 거대한 거짓말의 기구이다. 여기에 전형적인 事例를 두개만 들기로 한다.

첫째 1968年의 1.21 事態에 對해서 當時 外相이었던 朴成哲은 2月 17日 言明하기를 「南朝鮮 人民의 武装 遊擊隊가 괴뢰 大統領의 官邸가 가까히 까지 肉迫해가서 總驛轍을 벌린것을 위시 해서

註 18) 北韓의 宣傳・煽動政策과 그 體系, 國際問題, Vol. 4 No. 11, 1973. 11 月호, P. 74.

南朝鮮 各地에서 活潑하게 展開 되고 있는 武裝 遊擊隊에 關해서 말 한다면 이것은 美帝國主義 侵略者와 한주먹 밖에 되지 않는 南朝鮮의 매국노에 反對해서 일어난 南朝鮮 人民의 愛國的 革命鬪爭]이라고 했으며, 이미 이와같은 宣傳煽動(I)은 1月22日부터 放送에서는 始作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68年 10月下旬에서 11월에 걸쳐서 北韓 武裝間諜 120名以上이 집투에 對해서 勞動新聞 民主朝鮮은 勿論 라디오 放送은 연일 最大규모로서 이 事件을 韓國軍警과 「南朝鮮 人民」의 武裝 遊擊隊의 衝突로서 보도하였다. 그 特有의 성성한 북 소리의 平壤放送은 「武裝 遊擊隊는 4千萬 朝鮮人民의 偉대한 首領 金日成 원수 萬歲, 美 帝國主義와 그 앞제비를 나도하자고 결구 했다. 遊擊隊의 政治宣傳은 반미 반정부의 감정으로 가득차 있던 마을의 전체 住民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遊擊隊員은 惡質 地主에서 부터 불수한 食糧과 돈을 훔추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후일 다시 맞날것을 約束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다른 지점으로 行軍했다」 「한 武裝 遊擊隊가 北韓군 수인리 部落을 일주야에 걸쳐서 장악 했을 때 武裝 遊擊隊의 政治 宣傳 工作에 감격한 靑壯年 多數는 그자리에서 武裝 遊擊隊에 參加 하기 위해서 이름 年令 住所를 쓰고 도장을 찍어 入隊願書를 提出했다. 이와 같은 事實은 南朝鮮의 數百萬 人民의 바로 이와 같은 각성과 각오가 革命鬪爭의 불꽃속에서 具體的 行動으로 發展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상으로서 結論 지낼수 있는 것은 北韓의 放送은 첫째로 社会 全体의 組織과 분위기가 圧倒的이라는 점과 放送의 음파에 의한 連續的인 刺戟은 住民들에게 거의 完全한 一方的인 刺戟으로서 作用하는 點으로 住民들의 비판능력을 本質적으로 減少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住民들이 情報에 대한 選擇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比較能力도 發生하지 못한다. 둘째로 이와 같은 社会学的 또는 社会心理的 基礎 위에서 黨組織을 통해서 <宣伝煽動>이 進行 되는 것이다.

그래서 黨에 의해서 순거기준이 주어지면 下部組織은 住民의 生活의 모든 面에 걸쳐서 組織적으로 이것을 확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宣伝 했다 하면 그것이 좋다고 바로 行動에 옮기며, 잘못된 것은 具體的 實情에 適用시키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理論 自体는 좋은 것이 라고만 생각하지 그 以上 더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北韓의 宣伝은 자기 主管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無條件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 19) 그래서 住民들로서는 自己들 힘만으로는 檢討하고 確認할 수 있는 아무런 方法이 없는 채 黨의 유일사상이 주입 되게 되는데 - 말하자면 黨에 의한 一方的 情報 提供 - 黨이나 金日成이가 虛偽를 自由롭게 宣伝할 수 있는 根拠가 된다.

註 19) 상제서, P.73에서 인용.

3. 最近의 對南放送의 傾向變化

말할바도 없이 평양当局의 宣傳煽動의 基本目標은 社會主義 찬양과 金日成의 유일사상체계의 침투에 있다. 70年 以後의 北韓의 전출판물을 分析해보면 그 傾向은 大略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金日成의 주제 및 유일사상은 65年以後 70年까지에 걸쳐서는 증가 일로에 있었고 그것이 70年에 와서는 戰爭에 도달한 인상을 주었으나 70年의 전출판물의 67%가 金日成 우상화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71년에는 45%, 72년에는 19%로²⁰⁾ 감소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 事實은 金日成의 우상화가 감소 되었다는 事實을 의미 하기 보다는 70年 以後에 들어 와서는 金日成의 思想이 制度化된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制度의 機能 그 自体가 바로 金日成의 絶對性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金日成 思想의 現재화현상은 모든 일이 金日成의 人格과 결부되는 만큼, 特別히 表現해야 할일 다시 말 하자면 異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명해야 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 金日成과의 關聯에서는 別로 끊어질 程도로 그것이 일상화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 社會主義 憲法」의 採択과 아울러 金日成을 國家主席으로 <추대>한 事實은 社會적으로 그의 存在가 普遍화된것을 制度化하는 作業이라고 볼 수 있다.

註 20) 상제서, 이하 P.77, 參照

2) 反面에 7 個年 經濟計劃이 끝나고 6 個年 計劃의 初期段階에 該當되는 70 ~ 72年間에 걸쳐서는 漸次로 北韓社会生活과 經濟建設에 관한 出版과 言論이 들어 났다. 70年에 8%, 71年에 12%, 72年에 14%라는 增加를 보이고 있고 73年의 9.9 절 때에는 6 個年計劃 一年 短縮 完遂를 宣言 하기에 이른 것이다. 後에 言及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傾向에 比例해서 南韓 社会의 모순과 生活上의 어려운 면에 대한 선동이 증가되고 있다.

3) 北韓放送에 對南用으로 平和統一問題를 主題로 하는 것이 일관된 特色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論理의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內容은 시시 各各으로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8. 28 金榮柱 聲明以後에는 金日成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주장 함으로서 7. 4 共同聲明 이전의 狀態로 後退한 인상마저 품기고 있는데 이것도 結局은 戰術的 變化에 不過할 것이다. 最近의 動向에 關해서는 다음에 言及하겠다. 여하간에 平和統一 問題에 관한 北韓의 全 出版物의 內容比例를 보면 70年에 12%, 71年에 14%, 72年에 29%라는 급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의 南北赤十字會談과 調節委의 活動이 있었다는 背景을 생각하면 當然한 일이며, 放送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 닉슨의 北京訪問 以後 中共의 UN加入問題가 表面化 되는 것과 매를 같이 해서 南北韓의 UN加入 問題도 그 可能性이 擴大됨에 따라 外交問題, 國際關係問題에 對한 出版物도 增加했다. 70年에는 613件, 71年에는 3,220件, 72年에는 2,248件으로 出기는 하였어도 대 UN關係에서 直接 關聯을 가지는 中東 아프리카 地域에 對한 것은 하고 있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北韓의 宣傳煽動의 一般的인 傾向을 背景으로 해서 最近의 北韓 放送의 論調變化를 分析하면 아래와 같다.

(1) <統一革命黨 복소리 放送>의 役割

7.4 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서 1972年 10月 11日 零時를 期해서 相互非難 比방을 中止할 것에 合議를 보고 이 合議를 充實하게 이행한 것은 우리側이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그러나 北韓側은 若干의 表現上의 차이를 보였을 뿐 內容에 있어서는 여전히 對南 宣傳攻勢를 繼續하는 것을 고만 두지 안했던 것이다. 北韓의 宣傳煽動概念의 適用은 그들의 「政治用語 辭典」²¹⁾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 金日成...의 敎示와 그 具現인 黨 政策으로 敎養하(는) 重要수단>이며 <소기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衆들에게 호소의 方法으로 그들을 動員하고 고무 추동하는 하는것>이며, <..... 出版物·라디오와 같은

註 21)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 P.336.

수단을 利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그것은 重要な 政治活
動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宣傳煽動은 對南 비방과는 概念이
다른데는 본거에 의해서 對南放送을 여전히 繼續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걸친 그들의 확성기를 통한
對南非難과 國軍煽動은 그것이 그들 自身 조차도 그 黑色性을 인
정하였는지 또는 戰術的 次元에서 그리 하였는지 간에 일시 中斷
한 것 같은 外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73年 11月 12日 그러니까 非難 비방중지 以後 만
1個月만인 이날의 對間諜本部長의 發表에 의하면 「北韓은 10月
16日부터 11月 6日까지 한달동안 경기·강원 地方 休戰線一帶에서
불온전단 7個種類 數千장을 살포하여 南北調節姿 決定을 一方的
으로 파기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발표에 따르면 이 期
間中 北韓은 7.4 共同聲明以前과 같은 수법으로 불온전단을 南
韓 一帶에 뿌린 것이며 그것은 <韓國 學生 總聯盟> <統一 革
命黨 中央委宣傳部> <韓國 民主 回復 促進 協會>의 名義로 되
어 있다 한다. 그것은 말할바도 없이 이상과 같은 여러 名義를
使用한 것은 이들 團體가 마치 韓國內에 있는 반정부 반체제적
지하조직의 活動인 것 처럼 위장하고 그것이 國內外에 미치는 影
響은 考慮하였고, 아울러 北韓 當局으로서도 아무 國難이 없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짓임은 三尺童子도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戰術의 技術的인 表現은 10月11日 비방중지후에 와서는 더욱 두더러지게 나타 났다. 그것은 평양의 제1, 제2 放送에서 는 어조를 약간 부드럽게 하면서도 對南비방 선동은 <統一 革命 黨 목소리 방송>을 통해서 일층 더 強化한 것이다.

<統一 革命黨 목소리 방송>은 그 스스로가 변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統一 革命黨은 南韓에 있는 地下民衆組織이며 따라서 여기서 하는 宣傳煽動 活動은 北韓 當局과는 直接 關係가 없는 것이며

7.4 共同宣言이나 10.11 合議에 의한 제약과 規制를 받을 性質 의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當局이 責任질 必要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973年7月1日부터는 即 7.4 共同聲明 一週年을 기 해서 <統一 革命黨 목소리 방송>을 평양 방송과 朝鮮中央放送이 中繼까지 하기 始作했다. 前述한바와 같이 <統一 革命黨 목소리 방송>은 1970年6月1日에 始作된 것이다. 이 放送은 「南朝鮮 革命의 전위적 기치, 統革黨의 戰鬪的 放送」으로 始作한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分明히 베트남의 地下放送에서 얻어온 것이 分明하다.

이 放送은 中波 1,135 KC, 短波 4,557 KC로 每日 아침 6.00 ~

8.00, 저녁 7.00 ~ 11.00 의 6시간 동안 우리말로 放送한다.

그리고 11.00 ~ 11.30까지는 英語로 放送한다.

평양放送과 中央放送은 每週 日曜日 저녁 7.30 ~ 8.00 까지

<북소리>放送을 中繼하기로 決定했으며 상기 두 放送은 이 決定을 알리면서 <북소리>방송을 敬請할 것을 호소 강조하였던 일이 있다.

말할 必要도 없이 假想的인 統一 革命黨 活動과 그것을 알리는 <북소리 방송>은 北韓 當局의 對南 赤化 革命戰略의 일환으로서, 그것은 전형적으로 「時間과 條件, 革命任務에 맞게 多樣한 形式과 方法으로 進行하여야 한다」²²⁾는 그들의 宣傳 煽動의 概念을 그대로 實踐하고 있는 것이다. 말 하자면 평양방송이나 中央放送이 <革命기지>로서의 北韓의 立場을 宣傳煽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南朝鮮解放論에 따르는 대중적전위정당의 내변 기관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上述한바와 같다.

2) 6.23 宣言 以後의 對南放送 論調

1973年 6月 23日의 朴大統領은 「6.23 平和統一

註 22) 상계서, P.336.

外交政策 宣言」을 發表하였다. 이 宣言의 골자는

- (1) 南北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侵略하지 않으므로서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 시키는 것이 통일의 선결 조건임을 지적하고
- (2) 南北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北韓과 함께 國際機構와 UN에 參與 加入 하는것을 반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發表가 있는 수시간 후 金日成도 제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 共産黨 總秘書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朴大統領의 演說을 반박하는 形式으로 해서 이른바 「社國統一 5大綱領」을 發表했다.

이 5大綱領은

- (1)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상태를 해소 시키고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 (2) 北과 南 사이의 多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며
- (3) 北과 南의 各계 各층 人士들과 政院·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되는 <대민속 회의>를 召集하고
- (4) 現存 制度를 當分間 그대로 두고 南北 聯邦制를 實現하며 國호는 <고려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며
- (5) 단일한 <고려 연방공화국>의 國호를 가지고 UN에 들어 가야 한다. 등이다.

이 金日成의 <5대 강영>이 發表된 後 北韓은 勿論 日本에 있는 朝總聯系統까지도 合勢해서 대대적인 5대강영 지지 軍중 대회 를 열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동원되어 실행방송, 宣傳·煽動을 繼 統적으로 展開했다. 勞動新聞, 民主朝鮮과 같은 新聞은 勿論이요 평양방송, 中央放送 등 各 放送은 繼統的, 反復的으로서 5대 강영 을 宣傳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南韓의 「6.23 宣言」은 <두개朝鮮> 조작 모략이요 민족분열을 위한 매국 배족적 책동 이라고 연속 비난 하였다.

이와 보조를 같이 해서 祖国 統一 民主主義전선 中央委 書記 長 허정숙 이름으로 5대 강영을 지지 하는 談話를 發表하고 南韓側の 政黨·社會團體 各계 各층의 인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靑友黨, 朝民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社會團體, 文化團體, 勤勞團體 責任幹部도 같은 內容의 發表를 연달아 했고 外國駐在 外交公館 에서도 5대 강영을 소개하는 記者會見이 열렸다.

여기에 6월 23일의 金日成 <5大 講領> 宣言後 10日間 (6.23~7.1) 간의 北韓 매스 . 미디어에 나타난 論調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1) <외래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것은 隸屬亡國의 길이다 >

6.24 , 平壤放送 解説

(2) <美帝를 南朝鮮에서 물러가게 하고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이룩하자 > 6.24 勞動新聞 社說 .

(3) <分裂을 防止하고 祖國統一 偉業을 實現하기 위한 民族의 대강영 > 6.25. 民主朝鮮 社說

(4) <분열을 고작시키는 두개 朝鮮을 만들려는 반민족적 책동 > 6.26. 勞動新聞 論說

(5) <朝鮮은 둘로 갈라질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 6.26. 民主朝鮮 社說

(6) <分裂을 막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黨과 공화국 政府의 성의 있는 努力 > 6.30. 勞動新聞 論評

(7) <分裂路線을 추구하는 자들 에게는 乙巳五賊의 恥辱만이 차례질 뿐이다. > 6.30 , 民主朝鮮 論說

(8) <單一 국호에 의한 南北聯邦案 實施는 祖國統一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 > 7.1. 平壤放送 解説 .

以上과 같은 내용은 平壤放送, 中央放送의 전파를 타고 南韓一帶에 흘러 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新聞들의 글도 전파화 되어서 보내졌다. 勿論 이 틈에서도 統一 革命黨 목소리 放送은 가장 격렬한 어조로 朴大統領의 6.23 宣言을 統一革命黨 代弁人의 聲明稿라는 形式으로 비난 하는 것을 잊지않았다. 이럴때 마다 金日成의 <5대강연>을 찬양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5대 강연 발표후 北韓은 이 5대강연의 각항을 하나하나 나누어 對南平和攻勢에 利用하고 軍축, 外軍撤収, 平和協定 締結등을 골자로 하는 5개항도 同時에 主張했다.

이에 따라 南韓의 6.23 宣言의 주지인 UN 同時加入論을 民族分裂策이요 분단 고정화를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고 또 南韓에서 主張하는 段階的 統一論을 統一을 가로막는 方案 이라고 비방 했다.

이와 함께 統一의 基本障礙는 美軍의 南韓駐屯이라 하면서 美軍撤収를 비롯한 反美, 反帝 宣傳을 強化하면서 同時에 日本軍國主義의 南韓浸透를 경계 비난하는 것도 있었다. 韓, 美, 日의 <國際反動>은 2개 한국조작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함께 몰아 공격하고 있다.

3) 8.28 김영주 성명 이후 論調變化

金日成의 6.23 「5대 강령」發表를 계기로 一層 열도를 더하기 시작 했던 北韓의 對南 平和攻勢는 김영주의 8.28 声明을 계기로 더욱더 가열 하였다. 그前에 있어서도 金大甲 事件으로 非難을 繼續했던 것은 事實이었으나 8.28 宣言 以後에는 南北對話를 과국으로 몰아 넣고 남한의 權力구조에 癰요를 일으키고 이로써 그들의 5대강령을 과대 선전할 계기로 삼아 南韓을 國內的으로 民衆과 이탈시키고 國際的으로는 道德的 하락 및 고립화 시킬 것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南韓 社會에 決定的인 극론 分裂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決定的 時期>造成에 급급 하였던 것이다.

具體적으로 말해서 8.28 宣言後 10日間의 (8.28~9.7)의 北韓의 放送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對南 論調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강파들과는 마주 앉아서 民族의 대사인 統一問題를 論議할 수 없다> 8.29, 中央放送 論說

2. <우리는 統一을 바라는 사람들과 對話하려고 한다>, 8.30, 勞動新聞 社說

3. <어떤 詭弁으로도 犯罪者의 正체를 가를수 없다> 8.30 平壤放送 論評

4. <南北 調節委員會가 자기 사명을 다하자면 共同 声明을 배신적으로 유린한 강파들을 除去하여야 한다> 8.30, 民主朝鮮 社說

5. <진짜 犯人을 잡으려 거던 犯罪의 소굴을 불태워야 한다>
- 8.3.1. 勞動新聞 論評
6. <對話 석상에는 統一을 바라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 8.3.1. 평양방송 論說
7. <서투른 演劇을 걸어치우고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8.3.1. 民主朝鮮 論說
8. <南朝鮮의 中央情報部는 金大中 납치 事件의 진범인 이다>
- 9.1 평양방송
9. <犯罪者의 발작정> 9.1. 노동신문 글
10. <미제는 100餘年前 부터 우리 나라를 侵略한 불구대천의 원수> 9.2 노동신문 글
11. <中央情報部의 배우들은 동분서답을 하고 있다> 9.3. 노동신문 글
12. <미제는 2個 朝鮮을 누구에게 강요해 보려는가?> 9.3. 평양방송
13. <朝鮮人民은 미제의 戰爭煽動을 날카롭게 지켜 보고 있다>
- 9.5. 노동신문 論評
14. <朴正熙 역도는 南朝鮮 經濟를 송두리채 外來 獨점자본에게 맡기고 있다> 9.5 평양방송 論說
15. <日本과 南朝鮮 공모자들의 망동은 궁지에 빠진자들의 演劇 놀음이다> 9.6. 中央放送 論說
16. <자주적인 對外政策의 깃발아래 世界 만방에 나래치는 祖國의 氣象> 9.6. 평양 放送 解說

17. <統一 위업에서 한 매번 행위> 9.6, 노동신문 글

18. <南北 統一은 한지도 미룰수 없는 최대의 民族的 임무>

9.7, 中央放送 論評

以上과 같은 일련의 放送, 論說들은 하루 平均 2件的 對南 비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그 비방의 論理를 整理 해 보면 아래와 같이 要約 된다.

統一 과업은 <民族的 使命><最大의 民族的 任務>이며 따라서 그것은 <自主的인 對外政策>에서 可能한 것이나 <100年前 부터 우리 나라를 侵略한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 와 <日本과 兩朝鮮 公모자들>은 <두개 朝鮮을...강요>할려고 하고 있다는 그들대로의 國際資本주의 勢力的 政治的 解釋을 우선 宣傳의 基조로 삼으면서 <朴正熙 역도들은 兩朝鮮 經濟를 송두리채 外來 獨점자본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兇惡을 兩韓에 고정 시켜놓고 南韓側을 <강제> <犯罪者> <역도>로 규정하면서 이의 모든 싹은 <真犯人>인 <中央情報部>및 그 <배우들>이라고 하면서 우선 도덕적으로 하락 시켜놓고 金大甲 事件으로 그 作業을 國際水準에 까지 擴大 함으로서 兩韓을 고립시킬 저의를 나타 냈던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역으로 中央情報部를 <犯罪의 소굴>로 규정하고 그것을 <불태워야 한다>고 함으로써 大韓民國 政府의 중추부에 타격을 가함으로서 兩韓內의 分裂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統一을 바라는 사람>하고 對話를 하겠다고 하니 그 의도 하는바는 너무나 明白한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는 곧 組織面에서 나타난다. 8.28 김영주 성명이 있자 北韓에서는 各 政黨·社會團體, 勤勞團體들은 이 聲明을 支持하는 聲明을 發表하고 라디오는 이것을 일일히 보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日本의 新聞들의 보도·論評을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것이다.

이 간에 있어서의 表現의 강도 變化를 參考 삼아 分析에 보면 아래와 같다.

1. 상호 비방증지 合議後 一時 뜸하던 個人 비방은 8.28 김성주 聲明이 있었던 때 부터는 처음으로 <朴正熙 역도>라는 表現을 했다. 그전까지는 주로 <南朝鮮 高位當局者>라는 表現을 使用해 왔다. 이와 같은 직설적인 表現은 北韓側의 저의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 될수 있다.

2. 그러나 8.28以後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中央情報部와 이 후락 部長에 대한 공격이 積極化하고 가열 했다는 事實이다. 종전에는 단순히 <反共 모략기관>이라는 表現을 쓰면서도 中央情報部를 정면공격하는 것을 避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이후락 부장에 대한 直接 공격도 없었다는 점을 考慮한다면 이것은 두드러진 變化다. 이와 같은 이후락 부장에 대한 非難의 격화의 반동이라고 보이는 것은 김종필 總理에 대한 종전의 非難 공격이 약화경향이다. 分明히 南韓 權力 分綴을 노리는 進술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表現 論調 變化는 너무나 急激한 것이여서 北韓當局의 對南 政策 變化의 先兆가 시작 되었음을 能히 간지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 變化의 過程은 예컨대 8.28 김영주 聲

明齣 속에서 <이후락>이란 個人 호명이 9번이나 나왔고 거기에 따라 <中央情報部 特務>라는 말이 3번이나 使用되었고, 여기에 대한 형용사만 추려 봐도 <야만적 行動, 음모, ٱատ소적 폭압, ٱատ소적 통치배, ٱատ소 도당, ٱատ소적 테러 분자, ٱատ소적 질서, ٱատ소적 탄압, ٱատ소, 反共ٱատ소 政策, 악랄한 모략策動, 國際的 ٱատ소 行爲, 야수적 만행, 犯罪的 策動, 배신 행위, 民族 반역적 正体, 反 인민적, 反 민족적, 애국 배족적 策動, 미일 만동, 日本 当局者, 미국 공모자 등등>의 말로서 表現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戰後 냉정시대의 UN에서의 소련대표 비현스키의 독설을 그대로 뽀뽀만 ٱատ소만 ٱատ소만 주는 것이다. 그래도 이 시기에 있어서는 ٱատ소의 열도가 강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政策的 性격을 나타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10月 28日의 金日成 演說은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4. 10.28 金日成 演說 以後의 論調 變化

불가리아의 토도르·지프코프 국가평의회 의장을 환영하는 평양 군중 대회에서 金日成이가 演說하였는데 그 내용은 現在까지의 北緯의 出版 放送의 論調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선 그 演說의 重要 特徵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1. 南韓과의 對話 타협을 거부. 金日成은 8.28 김영주의 聲明을 뒷바침 하면서 調節委의 事業과 南北對話는 사람을 교체하고 특정인을 除去하고 進行 되어야 한다고 했고, 調節委는 眞正으로 統一을 願하는 사람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調節委는 統一에 기여하

는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南韓에 대한 일종의 最後通牒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오직 鬭爭에 依해서만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으며 分裂主義者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 南韓當局을 분열자로 호칭해 온것에 關聯시켜 본다면 이 타협거부는 分明히 政府를 의미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서도 調節委는 繼續되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基本的으로 權力構造의 變更을 전제로한 이야기라고 풀이될수 있는 것이다.

2. 平和統一論과 對南赤化 革命戰略과의 並行. 7.4 共同聲明 以後 一時 자취를 감춘것 같은 인상을 주어진 赤化統一論은 10.28 演說 以後로는 平和統一論과 對南 人民 革命戰略이 同時に 前面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일면 위험, 一面 對話라는 이중전술로서 그것의 對南 宣傳에서 폭넓은 效果를 거두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分析된다. 그것은 同時に 北韓內部 權力 구조에 있어서의 강은 양파의 어느 쪽도 決定的인 이너시아티브를 取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金日成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고 將來의 變化되는 客觀 條件 - 이를테면 UN 總會에서의 對韓政策의 決定 如何에 따라서 - 에 대처할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뜻도 있음을 간과할수 없다. 同時に 10月2日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南韓內의 學園事態를 最大限 利用하겠다는 저의도 있는 것이다. <우리당과 공화국 政府는 南朝鮮 人民들의 정의의 鬭爭을 언제나 積極 支持 成원할 것이며 그들의 鬭爭이 온 民族의 사회적 利益에 直接 關聯 되는 것인 만큼 우리는 그에 대하여 完全히 責任을 같이 지는 立場에 확고

히 서 있는 것이다 >고 까지 하면서 南韓의 一部 반발현상을 北韓當局의 정치적 利益과 同一視 하는 態度를 보였다. 이 점은 <南朝鮮 革命論>의 소산이며 平和統一 論調와는 完全히 別個의 범주에 속하는 일로 金日成이가 宣稱했다는데 問題의 중대성이 있다.

3. 美帝와 일본 軍國主義 非難. 10.28 演說에서 金日成이가 <조선사람들 속에서 分열을 要求 하는 勢力이 있다면 그것은 外來 獨점자본의 사환꾼인 南朝鮮의 극소수 매관 자본가들과 미제와 日本 軍國주의자애>에 달린 앞잡이들 뿐이고 <南朝鮮을 永遠히 미제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日本 軍國주의의 商品 판매시장으로 만들려는 음모 策動>이라고 했다. 이점은 北韓이 <社會主義 國家>인 以上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으나 南韓을 그 앞잡이로 규정하는 것은 北韓의 지위를 높일려는 의도가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여하간에 미국 日本에 대한 공격 비난의 격화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 유대에 썩기를 칠려는 의도에서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10.28 演說後의 10日間(10.28~11.6)의 北韓의 매스·미디어는 金日成 演說을 解說 지지하는 것으로 시종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가 없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의 필봉을 높이라>, 10.28, 평양放送 論評.
2. <民主의 햇불은 유신독제를 불사르고야 말 것이다>, 10.28, 평양방송 정론.

3. <매관 資本家は 米제 侵略者の 앞잡이 > 10.28, 평양방송
解説
4. <분열주의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들어내 놓은 배족
적 문건 > 10.29, 평양방송 論評(韓國의 대U N 작서 非難)
5. <써어 빠진 日本노래가 버젓이 연주 되는 서울 > 10.30,
朝鮮 中央通信 記事
6. <南朝鮮 분열 主義者들의 民族분열 策動은 決코 容납될수
없다 > 11.1, 노동신문 글
7. <대 민족회의 소집의 정당성 > 11.1, 평양방송 解説
8. <그 어떤 계변과 발악으로서도 영구 분열 策動을 合理化
할수 없다 > 11.1, 民主朝鮮 글
9.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 11.2, 평양방송 解説.
10. <남치법들은 責任을 모면할 수 없다 >, 11.3, 평양방송解説
11. <南朝鮮 青年 學生들은 社會의 民主化와 祖國統一을 위한
의로운 싸움에 더욱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한다 > 11.3, 노동신문
論評
12. <궁지에 빠진자들의 졸렬한 演劇 > 11.4, 평양방송 論評
(김홍리 訪日 비난)
13. <이론바 현대화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武力 增強策動 >,
11.5, 中央放送 論評
14. <유례없이 과염치한 政治的 사기행각 > 11.5, 노동신문 論評
15. <호전분자들의 추악한 모략 宣仗 > 11.6, 노동신문 論評

16. <擴大된 民主化 鬭爭은 팻쇼 도당의 運命을 예견하고 있다> 11.7. 노동신문 論評

17.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人民들의 반항이 있는 법이다> 11.7, 평양방송 論評

18. <대결과 競爭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 11.7, 평양방송 論評.

19. <調節委員會는 진정 통일 위업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구로 되여야 한다> 11.7 평양방송 解說

20. <祖國의 統一과 世界平和 위업, 반제 革命 위업의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영적 지침> 11.7, 民主朝鮮 演說(10.28 演說 찬양)

以上과 같은 內容들은 이제 對南非難에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모든것들은 勿論 전부 전과를 타고 南韓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지만은 20個의 건수중 방송이 직접 論評의 형식으로 해서 한것이 12건이 되는것을 보면 방송의 특성 공세에서 앞세우게 되는 경향을 확실히 볼수 있다. 여기에다 정기적으로 중계하는 <統一 革命黨 목소리>放送까지 添記하게 되면 대남공세를 위한 전과 공세가 엄청난 양이 되는 것이다.

좀더 그 內容面에서 세분해서 分析해 보면 10.28 演說 以後는 아래와 같은 特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다.

1. 10.28 演說 以後의 北韓의 對南 내방의 態度는 한마디로 말해서 7.4 共同聲明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 갔다고 할 수 있다. <朴正熙 괴뢰도당, 애국도당, 강태 집단, 매국 역도당 등등>수 없

이 最上級の 비방을 하는 表現이 激등강하고 있다.

2. 學生·知識人들에 대한 선동이 강화되었다. 서울大生의 態도를 계기로 이를 支持하는 大會를 열고 學生, 知識人, 言論人, 文化人에게 反정부 鬭爭을 繼續하며 총걸기 할것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3. 軍人들에 대한 선동이 強化되었다. 9月 28日에 越北했다고 하는 國軍 2等兵 이광복의 記者會見을 크게 보도 하면서 國軍에 對한 宣傳·선동을 強化하고 있다.

4. 北韓의 建設상 및 生産活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반드시 對南 비방과 半和 공세를 兼하고 있는 것이어서 北韓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9節때 金日成의 6個年計劃 1年 단축 目標을 크게 앞세우고 있는 것(이것은 9.4~9.17간의 당 제5기 제7차 中央委員會議의 決定事項이다)은 北韓 宣傳에서는 能히 기대될수 있는 問題 이기는 하나, 特別히 6個年計劃 遂行과 思想 文化 革命 遂行을 일체화 할려는데 강조점이 있는것은 資本主義 國家와 技術交流로 因한 外적 요소의 유입에 따르는 國內 解弛에 대비하는 자체정비책으로 分析될수 있는데, 이 點은 새로운 副總理 任命에서 이미 說明되었다. 말하자면 <物質的 要塞>와 <사상적 要塞>의 일체성만이 경제성장애 따르는 金日成 體制의 健全대성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일련의 論調 變化가 U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식하는 조직적 宣傳 선동 活動임은 勿論이다.

4) 最近 北韓 放送의 인용보도 경향

위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最近에 이르러 對南 放送의 特徵 中の 하나로서 南韓의 國內問題에 一層 더 着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具體的인 內容을 10.28~11.16의 20日 間의 淸陽放送, 中央放送의 경향을 추려 보기로 한다.

1. 20日 間의 라디오 보도에서 이른바 南韓의 모순상을 暴露한다는 뜻에서 南韓의 各種 新聞·放送·通信·雜誌에서 보도된 것을 인용 보도 하는 형식을 取함으로서 그 보도 내용에 진실성을 부여 할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은 종전에도 繼續되었지만 最近에 와서는 유별나게 빈번히 쓰여지는 方法으로 되었다.

2. 이 기간 동안의 인용보도 회수는 총 207건(이중 中央通信 인용보도분 5건은 中央放送 보도에 計算했음)으로서 1日 10件 以上이 된다. 北韓의 라디오 및 신문이 남한에 대한 論說·論評이 10日 間에 20건 정도임에 비하면 그 빈도를 짐작 할수 있다.

그렇지 마는 論說·論評의 빈도가 적다 할지라도 그 의미의 중대성이 그 만큼 미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論說·論評은 이른바 宣傳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南韓 매스·미디어 보도의 인용보도는 선동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3. 20日 間의 경향에는 뚜렷하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차를 보이고 있다. 즉 11月 6日 까지는 總 인용보도 55건이 南韓 社会

제분야에 걸쳐서 수탈, 경찰, 일인 觀光客, 日本 노래, 인금鬭爭, 간
 첩단 事件 등등 주로 社會主義와 民族主義를 내세우는 立場에서
 의 인용보도 였지 마는 11月7日부터는 압도적으로 南韓一帶의 大
 學生 데모사건의 보도에 치중하게 되었다. 즉 7日부터 16日까지
 사이에 152件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大學生 데모에
 관한 보도가 111件으로서 73%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frac{3}{4}$ 이 學生 데모 보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1件은 民主
 수호 협의회 식국선언 그리고 정부의 데모사태에 對한 態度非難
 1件이 包含되고 있음) 이 事實은 北韓 當局이 學生데모사태를
 얼마 만큼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중에서도 거의 선동의 절정에 달했다고 할수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서울大 敎養學部 學生 同盟休學
 斷行事件에 對해서 淸陽 放送은 11月8日 하로 동안 6회에 걸쳐
 서 보도 선동 했고 11月9日에 同 放送은 高大學生들의 學友救出
 서명운동을 6回, 같은 날 서울農大, 齒大 同盟休學을 7회에 걸쳐
 서 放送 선동했고, 11月10日에는 동방송은 8회에 걸쳐서 연대생들
 의 데모시도를 보도 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淸陽방송과 中央放送은 보도의 빈도에서 차를 보였으
 며, 이기간동안 淸陽방송이 學生데모를 보도한것이 72回 였는데 반
 해서 中央방송은 39회에 불과 했다. 이로서 보면 淸陽방송은 對
 南 선동에 주역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수 있다.

四. 우리의 放送体制와 機能

1. 歴史的 背景

우리나라에서 放送이 식작된것은 일제하 1927年 2月 16日이었다. 當時의 日本統治下에서 放送이 한일어불 混用하는 단일 放送을 하였다. 이것이 호출번호 JODK, 1kw 出力에다 파장 345미터 밴드. 스튜디오 2個를 가진 「경성 방송국」이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日本방송협회와 중계 連絡 放送을 하게 됨으로서 경성방송국의 자체 프로그램은 全体 프로그램의 30%로 되었다. 당시 청취자수는 295名이라는 처녀지 狀態에 있었으며, 비록 放送이 開始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韓國民衆과 關係가 없는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32年 4月 7日 「社団法人 朝鮮放送協會」가 생기자 二重放送이 추진 되게되었다. 1933年 4月 26日 경성방송국내에 한국어 방송을 전담하는 第二課가 생기므로 해서 二重放送이 시작되었는데 610KC에 出力 10kw라는 그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대규모의 것이었다. 韓國말 放送의 프로그램 自体가 1日 9時間에서 16시간으로 增加되고 內容도 韓國的인 것이어서 청취자수도 급격하게 늘어 나게 된 것이다. 이중방송을 실시하기 직전까지 전국적으로 8,000대 밖에 되지 않던것이 이중방송 시작후 만년이 지났을 때에는 무려 24,000대, 34년에는 4万대, 35년에는 52,000대, 37

註 23) 印雲燮, 韓國放送史, 放送文化, 1969. 4月号 P.67 이하

년에는 73,000 대로 늘어나서 라디오와 민중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²⁴⁾ 라디오 수신기 대수의 韓日人 別 數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比率은 알 수 없다 해도 매스·미디어
 어로서의 라디오의 보급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二重放送을 실시한 後 事前檢閱이 한層 強化되었으며, 放送原
 稿가 完成되면 우선 電話로 總督府 通信局에 제출하고 放送 도중
 에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檢閱은 그後 점차로 제도화 되어서 1937年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더욱 嚴重해 졌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國民精神 總動員
 計劃」內鮮一體化, 民化運動에 이용된 과정이 1945年 종전까지의
 경성방송국의 運命이었으며 韓國語放送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

특히 태평양 戰爭이 일어난後 부터는 日本語 講座까지 韓國語放
 送내에 편성되어 여태의 總督府의 임전특수방송의 수단으로 화하게
 되었다. 다만 특기할것은 중일戰爭以後 정취율이 급증, 1943年말
 즉 太平洋戰爭이 절정에 달하였을때에는 28萬5000대까지 라디
 오 수신기가 보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36年 以後
 年間 6.2%의 增加를 의미하며, 韓日人의 比率은 1939年末 現在
 를 基準으로 해서 말할 수 있다면²⁵⁾ 한일인 비율은 약 5:7로 볼
 수 있다.

註24) 上掲書, 1969. 5月号, P.32 以下

註25) 上掲書, P45 參酌

解放後 38 以南에는 10 個 放送局만이 있었고 미군정 시대에는 방송국은 政治的 中립을 지켜 왔지만 그동안 미군정청에 의해서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술과 이론의 訓練도 計劃實施하였다. 1947年 2 月에 50KW 復旧工事가 成功하고 ITU 호출 번호도 HL로 定해졌다. 6.25는 放送業務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나 釜山에서 放送機能은 急速히 회복되어 最大의 전차 뉴스원이 되었다. 그러나 放送局은 基本的으로 미군정에서 大韓民國 政府에 이양된것으로서 國營의 테두리를 벗어날수가 없었던 것이다. 환도 후 1953年 8 月 1 日의 大統預令 제 815 號에서 公報에 放送관리국을 신설하고 방송업무 전반을 전달 하게 했으며 KBS를 키·스 테이션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2. 放送 体制의 特性

韓國放送은 1960 年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体制를 갖추기 시작 했다고 할수 있다. KBS라는 거의 독점적인 國營 방송이 50 年代 中반기에 들어서서 기독교 방송국(1954年 12 月 15 日開局) 商業TV 放送局(1956年 5 月 12 日 開局하여 1959年 2 月 2 日 火災로 放送중단) 한국복음주의 방송국(1956年 12 月 23 日開局하여 1961年 1 月 19 日 國際 福音放送局으로 開稱)들이 開局하여 우선 종교계 同의 방송이 KBS와 併立하게 되었으나 부산 文化放送局이 순수한 商業放送으로서 1959年 4 月 15 日 出現하게 됨으로서 60 年代를 향한 새로운 극면이 展開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國營 방송에 병립해서 民間 상업방송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國營과 民營 상업

T V도 나타난 事實이다.

즉 1961年 12月 2日에 韓國 文化放送이 서울에서 開局되었고 같은달 31日에 K B S의 서울 텔레비전 放送局이 開局되는가 하면 순민간 방송으로 1963年 4月 25日 東亞放送局이 開設되고 1964年 5月 9日에는 순민간 상업방송인 라디오·서울(現東洋放送)도 開局하고 같은해 12月 7日에는 東洋 텔레비전 방송국이 開局되고 하여 1966年 6月 22日에는 文化放送에도 T V設置許可가 내리고 해서 現在의 韓國放送 體制의 基本構造가 형성되게 된것이다. 現況을 도표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國營放送(K B S)

라디오 : 방송국 체제

中央 放送局

第 1

第 2

第 3

海外放送

十七個 地方放送局

三二個 中繼所

放送系統圖

T V :

서울(南山) 방송국

十七個 地方放送局

六個中繼所

民間放送

라 디 오

1) 기독교 방송 (CBS)

서울放送局

四個 地方 放送局

2) 韓國文化放送 (MBC)

라디오나 TV의 키·스테이션이 서울에 있으나 法制上으로는 각 地方放送局이 株式会社로 獨立하고 있으며 技術, 經營面에서는 統一方式을 取하고 있다. 現在 19個 地方 라디오 放送局과 7個 TV 放送局이 있으며 現在까지로는 民間放送 體制中에서는 가장 넓은 청취망을 가졌다고 할수 있다.

3) 동양방송 (TBC)

라디오나 TV의 키·스테이션이 서울에 있으며 부산에 동양TV 부산방송국이 있으며 그 이외에 西海放送, 全日放送등 라디오放送局을 산하에 두고 있다.

4) 極東放送局

5) 自由아시아放送

6) 國軍放送

7) FM放送

KBS, MBC, TBC, 韓國FM放送(대구)이 제작기 FM 放送을 하고 있어 FM放送체제도 이제는 韓國放送에 있어서의 하나의 구성요인이 되고있다.

8) 學園放送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14個 大學에 大學放送이 있고 기타 教育目的의 學校放送이 2個, 서울大學이 있다.

以上과 같이 韓國의 放送體制는 K B S가 韓國放送公社로 재출발한 後라 할지라도 그 기본구조는 관영과 민영의 2대 體制로 구성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體制下에서 어느 만큼이나 청취자가 있는가. 1972年末現在の 統計에 의하면²⁶⁾ 全國에 3,968,192대의 라디오 수신기가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사용되는 스피카가 245,686個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TV수상기 보급률은 全國에 954,542대며 그중 서울이 509,229대로서 과반수 이상이 서울에 集中하고 있다(대인구보급율 0.3%) 여기에 비추어보면 라디오 보급율이 그리 높은편은 되지 못한다고 할수 있다.

3. 韓國放送공사의 問題點

國立 中央放送局이 韓國放送공사로 개편되고 國營에서 公營체로 전환하게된 以後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몇가지점에서 實質的으로 國營의 範圍에서 벗어났다고 할수 없다.

첫째로 韓國放送公社 定款의 第5條에서 公社의 資本金 100億원 全額을 政府에서 出資하고

둘째로 定款 變更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文化公報部長官의 認可를 받게 되어있고(第7條)

셋째로 社長任命權은 大統領에게 있고 副社長 및 理事는 文化公報部長官의 任命으로 되어 있고(第9條)

註 26) 韓國放送年鑑. 1973, P. 588 및 590

네째로 公社 任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号에 該當하지 아니해야 하고(第12條) 등이 그 特徵的인 것이다.

그렇다면 國營 放送에서 公營 放送으로 바꾸었다 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放送事業이지마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는 대중을 對象으로 하는 정신적 文化的 창조행위라는 特性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官僚체제의 기능만으로는 그 역할을 다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순전한 技術體系의 기능 만으로도 內容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基本 모순을 지양할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國營放送으로서 유지할려면 「主事 푸로듀서와 書記 아나운서」²⁷⁾라는 코메디가 발생 할수도 있다. 그래서 放送 종 자원에게 政府職位 名稱을 줌으로서 放送業務의 분배의 기능이 官僚制 體制로 規格化됨으로서 事務處理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양두구육의 모순을 내포할때가 더 많은 것은 오래동안의 K B S의 歷史에서 結論 지우질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언급할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國營이 放送에 있어서는 絶 對善이라고만 할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政府의 전통, 國民文化 水準, 공동가치 관의 成立 等等 여러가지 선행조건이 있으면 商業放 送에 수반되는 약점을 배제 할수도 있는 것이다. 여하간에 放送公 社의 發足은 하나의 짐 즉 放送事業이 그의 特殊性으로 하는 文化創造의 기능이 官僚체제에 의해서 틀에 박이는데서 벗어 났다는 점에서는 발전이라 할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過去에 國營放送事 業이 擴張됨에 따라서 政府組織法上的 機構에 변화를 갖어와야 한

註27) 李德根, K B S의 合理的 運營을 위한 提案, 放送문화
1968.6月号 P.54에서

다는 主張. 이를테면 文公部內에 放送庁이 생겨야 한다는 등의 主張이 단순 행정관료적 이론에 불과 했다는 것을 証明해줄 뿐이다.

여하튼간에 放送公社は 형식면에서 공사로 탈바꿈하여 現在까지 약 반년 동안을 지속해 왔기는 하나 아직도 그것이 國營放送이라는 인상을 國民에서 부터 분식하지는 못하였다. 그 理由는 간단하다. 放送編成과 內容問題는 뒤에 언급키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問題에서 放送公사의 운영에 착각이 있는듯 하다. 즉「유신방송」이라는 明分아래 100% 정부시책의 선전에 시종일관하는 것이 總화를 가져오는 길이며 또 그렇게 여론을 操縱助長하는 것 만이 放送公사의 의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결과는 마치 淸취자 즉 國民속에서는 자발적인 社會愛, 國家愛, 民族愛라는 것이 없고 오로지 방송에 의해서만 자극되고 형성될수 있는 것이라는 愚民觀이 충만하고 있는 인상을 품겨주고 있다. 그것은 放送公사가 방송의 편성과 內容에 있어서 民衆의 淸의와 비판력에서 차단되고 있는 때문이라고 보여 지며, 그렇지 않다면 選擇의 範圍가 지나치게 좁은 탓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새마을 운동 소식」같은 프로그램은 農漁村사람들의 自愛心, 愛國心이 具體的으로 表現되는 創造의 본보기로 파악 소개 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리 「노래 자랑」시간에 각계 各層의 사람들이 출연을 한다해도 그것이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의미에서 國民 總화에 如何히 調和될 것인가 하는 問題點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 것이다.

4. 우리 放送体制과 外國과의 比較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 放送体制은 60年代에 구조화된 것으로서 國營과 같은 內容의 公營방송국 즉 韓國 放送公社가 가장 重要한 줄거리를 차지하고 여타 分野가 民間 商業 및 宗教團體 放送이 있기에 그 특징은 혼합형이라 할수있다. 이와 같은 혼합형의 모델은 日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 1951년에 美軍司令部와 日本政府에 의해서 제정된 이른바 電波三法에 의해서 公營의 放送의 基本構造가 定해 졌던 것인데 이로서 1924年 以後 日本 放送을 독점 해오던 社團法人 日本放送協會는 特殊放送協會 (NHK)가 新發足하였고 아울러 民間放送事業의 認可問題도 규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NHK는 12名의 經營委員會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委員들의 任命權은 首相에게 부여되어 있고 (放送法 第 16條), 放送編成의 基本計劃규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業務執行理事 (8名)의 任命은 經營委員會의 同意를 얻게 되어있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財源問題는 시청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8年 放送法一部 改正으로 라디오 單獨契約者로 부터의 청취료 徵收는 폐지) . 주지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放送은 TV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NTV를 비롯하여 49개의 民營TV會社가 있어 (그중 12個가 東京에 있음) TV 채널의 壟斷 상태속에 있는 것이 실정이다. 단적으로 봐서 NHK와 民放의 시청률 분포가 35:65라고 하니 NHK의 影響力이 얼마나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相對的으로 라디오의 退潮現象을 한때 가져 오

기도 했지만 1967년에 라디오強化委員會가 발족하여 各種 研究 結果 라디오를 「生活情報媒体化」시키면서 시민속에 파고 드는데 成功하면서 그의 商業性을 발휘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日本은 放送의 量的 發展面에서는 놀라운 前進을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비판이 없는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바로 日本의 放送体制의 外樣과 機能을 縮 小해서 보면 우리의 그것과 많은 점에서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韓國과 日本의 放送이 混合体制로 된 것은 말할것도 없이 2次 大戰後의 美國의 영향이다. 다만 우리와 日本은 그 전통적인 國營放送의 기반 위에 상업방송체제가 첨가되었다는것 뿐이다. 그런데 이 混合体制은 美國의 압도적 영향에 대한 한국·일본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이지, 傳統的 特徵(國營放送)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基本的으로는 韓國과 日本의 政治体制와 社會性格에서 설명되어야 할 問題이다.

여하튼 美國의 放送은 이윤추구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特徵이 있다. ABC, CBS, NBC에 의해서 代表되는 美國의 放送網은 世界에서 가장 放送受信機를 많이 保有하고 있는 美國民을 淸취자 로 가지고 있으니 만치 방송체제는 美國의 제4부의 重要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라디오 보유대수는 美國人口보다 많은 2億 6千7百萬대이며, TV수상기는 전자정의 약 95% (그중 40%이상은 색채 수상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해서 보면 美国放送体制과 우리의 그것과는 比較의 次元이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여서,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관련성을 찾을 수 밖에 없을것이다.

美国에 比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가 있는 것은 英國이라 할 수 있다. 英國에서는 라디오는 商業放送이 없고 英國放送協會(BBC)라는 公同體(Public Corporation)의 特權으로 되어 있고 營利에 目的을 두고 있지 않다. NHK처럼 BBC의 經營委員은 國王 또는 女王이 任命하게 되어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國權의 產物이다. 그러나 BBC의 독립성은 英國의 독특한 관습법의 기능으로 保障되어 있어 BBC의 독립성은 世界가 認定하는 바로 되어 있다. 다만 BBC의 國家에 對한 2대 의무는 政府閣僚의 요구에 따라 閣僚放送(Ministerial Broadcast) 시간을 供給하는 것과, 議會開會中 上下兩院의 심의상황을 매일 公明하게 放送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TV는 BBC 이외에도 商業放送인 독립 TV회(ITA)가 있으며 近年에 와서 TV 商業放送이 討論의 對象이 되고 있기는 하나 뚜렷한 結論은 없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주로 聽取 및 視聽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問題는 政府에 對해서 料金引上을 하는 협상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英國과 마찬가지로 放送에 대해서 國家權力이 自己主張을 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情報相의 직접 管轄 밑에 있는 放送은 <公共用營造物>이라는 명목 밑에서 RTF는 政府 專用物로 가능하였

기 때문에 60년대 초반기까지는 프랑스 청취 및 시청자의 半數를 주변국가들의 商業放送에 빼앗긴 사례가 있다.

(주로 룩셈블르크의 상업방송) 이와 같은 일이 계기가 되어 1964년에 프랑스放送協會(O R T F)가 발족하게 되어 政府의 直接 管轄에서 벗어나 經營委員(14~28名)의 半만이 政府에서 任命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원은 주로 시청 및 청료에 의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西獨은 戰後 연합국점령에 따라 放送体制의 構造가 基本的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그러나 放送이 公法上의 公共施設이라는 전통적인 성격은 지속되어서 점령지구마다 軍政의 機關으로 재출하게 된 것이다. 美軍占領地域에서는 4個의 放送채널이 4개주에 設置되었고 불란서 지구에서는 두개, 英國占領地區에서는 하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53年11月12日 自由伯林放送이 獨立되어 그때까지 英國管下에 있던 것이 獨立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6년에 「北西獨逸放送」으로 하나가 되어 있던 것이 「北獨放送」과 「西獨放送」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우리로서 관심꺼리가 되는 것은 3개의 특수방송인데 이것을 모두 합쳐서 12個의 라디오방송채널이 있다. 이중 라디오放送과 TV방송을 兼하고 있는 것이 3개가 된다. 이들이 모두 國營放送이지만 3개 특수방송이라 함은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독일전파 (Deutsche welle)

주로 對外放送을 하는 채널이며 美國의 Voice of America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Voice of Germany 다. 전후 서독의 입장을 선전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독일방송 (Deutschlandfunk)

동독지역을 주로 하여 그 주변의 동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의 對北放送에 해당한다.

3) 第二獨逸 TV 放送 (Zweites Deutsches Fernsehen)

서독 각주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全國 TV 放送體制이며 第 1 TV 放送을 각주의 TV 放送이라고 할것 같으면 第 2 TV 放送은 全國 TV 放送이 되는 格이다. 따라서 이 放送만큼 정보나 가치관을 全國적으로 統一化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放送은 각주 放送이 중계하는조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의 실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 TV 放送은 全적으로 각주의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서 成立된 것이기 때문에 政府에서 부터 거의 完全히 獨立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共同編成, 運營管理의 共同協同이 각주간에 협조가 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독일의 민주적 구조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西獨의 라디오 및 청취자수는 1972年 現在 19,087,000 , 16,813,873 으로 되어 있다. 이미 獨逸은 세계에서 최초로

T V가 개발된 나라로서 1935年3月23日 伯林에서 오후 8.30時에서 10時까지 每日 放送하다가 1936年 伯林올림픽大會때는 시내 25개소에 T V 시청소를 마련해서 入場치 못한 사람을 보이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 T V가 放送된 것을 1950年9月25日 北西獨逸放送이었다. 그러나 一般化하기는 1952年 12月25日 이었다.

어쨌든간에 독일의 放送은 商業主義에서 오는 폐단을 배제하면서 또 政府에 의한 통제도 자율적으로 제거하면서 自由로운 放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憲法(基本法)이 글자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5. 우리 放送의 內容

모든 社會制度는 形態와 內容間에 상관관계가 있다. 形態와 內容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 制度의 技能이 한계점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放送의 社會的 技能을 여기서 운운할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現在 韓國의 여러 放送局의 設立目的 또는 社是라는 것을 보면 生産的인 社會氣風造成」과 「國民總和에 이바지 한다」(KBS), 「道義心 向上과 基督敎的 敎養의 育成」(CBS) 「自由, 責任, 品格, 團合」(MBC), 「民族, 民主主義, 文化主義」(DBS), 「社會正義, 社會福祉, 社會公器」(TBC) 등으로 宗教系統放送을 除外하고는 대개가 社會와 民族과 民主主義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外觀을 나

타 내고 있다. 말하자면 社是나 設立目的 그 자체로서는 각 방송의 特殊性 또는 專門性은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매우 綜合的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 사실은 社是로써 어느 特定 放送의 內容과 編成構造를 알아보기란 무의미하다.

그러면 放送 프로그램의 內容을 보면 방송의 內容을 알 수 있겠는가? 73年度 「韓國放送年鑑」에 따라서 각국의 編成比率을 보면 아래와 같다.

部門別 編成比率 (週間)

局 名	期 間	報 道	教育教養	演藝娛樂	其 他	計
K B S 第 一	72.9	20.6	42.8	32.4	4.2	100
K B S 第 二	72.9	0.4	74.4	22.4	2.8	100
C B S	72	13	21.5	65.5	0	100
M B C	72.10	15.9	15.5	57.1	11.5 (스포츠포함)	100
D B S	72.10~11	15.8	28.5	54.0	1.7	100
T B C	72.10	18.2	25.5	50.8	5.5	100

이와 같은 編成比率만으로서서는 K B S 第二放送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지게 編成上의 특징을 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編成構造보다는 編成上의 主眼差異가 중요한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

에 따르는 原稿作成者 또는 論評解説者 選定이 구체적인 內容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인즉 이 문제는 각 放送局마다 다를 것이 현실이고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필경 본질적인 문제에 저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정치 문제에 직접 飛火할 수 있는 問題다. 다만 가상적으로 韓國의 현실에 비추어 세가지의 성격(내용)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X, Y, Z 꼴이라 하자.

X = 行政府 및 輿論層의 意思와 意志를 直說 또는 暗示의 方法에 의해서 國民多大數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受納的 態度를 가지게 한다. (프로그램의 選擇性 強함)

Y = 社會不條理의 폭로와 비판을 통해서 일정한 期待價値를 各層에게 제시함으로써 國民속에 價値觀에 의한 磨化作用을 도모한다. (프로그램의 選擇性이 強함)

Z = 大衆의 流動的 감각과 욕구에 따르면서 大衆心理와 連帶性을 유지한다. (프로그램選擇의 基準을 大衆에서 부터 받는다.

商業放送의 特性)

말할것도 없이 위와 같은 세형이 어떻게 調和를 이루는가 하는 점이 초점이 되어야 하겠다. 더우기나 現在 全國 總家口數의 58.7%가 어떤 한가지 이상의 放送受信機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은 X, Y, Z의 作用 여하에 따라서는 바로 社會心理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五. 戰略的 改編方案

1) 北韓의 對南戰略의 最近의 特色

8.28 선언후 北韓의 對南戰略에는 급격한 變化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있어서 北韓이 「南朝鮮 解放 路線」을 견지하면서 平和協定, 南北政治協定, 南北聯邦案, 自主的 平和統一, 對日接近등 일련의 양동작전을 전개해온 것과 기본적으로 다를바는 없다. 다만 戰略面에서 차이가 있다면 8.28以後에는 南韓의 權力構造에 타격을 가하면서

1. 政權의 變質

2. 政權의 國際的 孤立化

3. 大衆에 對한 反政府 煽動 및 組織化

라는 세가지 點에 焦點을 맞추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宣傳, 煽動의 激化는 軍事的 衝突의 可能性의 排除度가 크면 클수록 激甚해질 것이며, 이와 같은 傾向은 그들이 調節委나 赤十字會談에서 그들의 提案이 體面維持의 程度에서 타결될때 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傾向은 UN에서의 韓國問題에 대한 共同聲明發表로 일단 國際與件이 이線에서 固定된 이상, 대남 공세는 치열해질 可能性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軸점은 여전히 南韓의 國內問題를 煽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政府側의 기반을 흔들면 흔들수록 南北對談에서의 양보가능성이 증대한다는 計算에 立脚하고 있는듯 하다.

2) 우리의 对北放送의 問題点

총괄해서 말한다면 72年11月11日 以後 K B S 第二放送 (对北放送) 을 비롯하여 文化, 東亞, 東洋, 基督教 및 極東放送局에서 하고 있던 对北放送이 중단상태에 있다. 따라서 現在로는 北韓의 对南 방송공세에 对한 体系的인 Counter action 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放送의 증진의 放送内容이 變한 것도 아니다. 다만 대륙면에서만 중지상태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파를 통한 우리들의 대북 의사표시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法制上 北韓의 「統一 革命黨 목소리」 放送과 같은 기능을 하는 대북방송채널이 성립될 수도 없다. 따라서 問題는 우리의 현존 방송체제를 최소한 내부구조를 變改하면서 대내·대이북 방송에서 國民團結의 중심점을 형성한다는 것이 시급한 問題点으로 登場한다. 아무런 가치기준의 再確立과 内容의 再檢討 없는 대북방송의 전달기구를 設立한다는 일은 「파 킨슨 法則」의 攄생물이 될 뿐이다.

3) 가치기준의 재확립

7.4 共同声明의 유래를 社會科學的인 次元에서 把握하고 國內外的 객관정세를 가치판단의 基準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以北의 共產主義 集團을 하나의 역사적·사회적·政治的 事象으로 認定하면서 그들이 內包하고 있는 운동법칙을 법칙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목살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과거의 反共路線의 前科學性이었다.) 그것을 操縱하려는 立場을 세워야 한다.

4) 对内 对北放送을 하나의 준거기준에서 실시한다.

現在까지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对内的으로는 維新主義와 商業主義가 混合이 되어서 放送되면서, 对北 放送에서는 주로 共產主義의 모순, 非人間性을 強調하였고, 따라서 对内, 对北放送이 마치 두개의 논리적 범주를 구성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왔다. 그러니까 对北放送은 南韓住民들에게는 「關係가 없는」것으로 認識되었고 따라서 对北放送은 하나의 <儀式>으로서 받아 들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統一이라는 요원한 目的을 위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대내, 对北放送의 기본 이론이 동일론리에서 구성되어야 함이 시급하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對해서 옳은 것은 北韓住民들에게도 옳은 것으로 說明될 수 있는 論理가 그것이다.

3. 民族의 問題点

민방의 특성은 그의 營利追求性 때문에 비상하게 外部環境에 對해서 예민하다는 점이나, 그러니만치 앞서 분류한 Z型이 되기 쉬운데 결점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放送局의 意思決定은 일정한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經營陣의 專斷分野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限界를 넘을 수 없다. 다만 專門技術分野의 導入에 융통성은 있으나 經營이나 放送編成 內容에 원칙이 없다. 이와 같은 특성은 对内, 对北放送에서 때때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를 초래하기는 하지마는 여기서 民放들이 社是에 내걸고 있는 放送의 「社會性」이 얼마나 形式的인가를 알 수 있다.

基本問題가 있다면 民放이 對北放送을 — 이것은 선전비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다. — 상업 베이스에 할수 없다는 점이다.

4. 機構問題

1) 對北放送을 전담하는 放送局 新設은 뜻이 없는 일이다. 그 대신 남한의 모든 민방을 통일적이 가치기준과 일관된 이론적 기초위에서 對北放送을 실시할 수 있는 틀은 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칭 <한국 방송문화 협의회>와 같은 比較的 초연한 미간 주도형의 최고 방침기구가 우선 필요하다. 이 기구의 특징을 본다면 아래와 같은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1) 韓國放送의 社會, 文化, 政治的 立場에 대한 理論的, 世界觀的 綜合機構가 된다.

(2) <협의회>는 經營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運營된다.

(3) 經營委員會는 政治, 經濟, 社會文化, 外交, 軍事의 4개 分科委員會로 構成되며

(4) 經營委員會는 各放送局이 정해진 比率에 따라 추천된다.

(5) 經營委員추천에 있어서 各放送局은 추천인원수의 반수 이상을 비방송분야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6) 經營委員推薦 比率은 韓國放送公社對 民放이 각각 35:65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다.

(7) <韓國放送 協議體> 運營委員會의 원칙 결정은 각 방송국

의 放送內容을 規定하는 강제성이 確立되어야 한다.

(8) <韓國放送 文化協議體> 運營費는 經營委員 推薦比率에 따라 各放送局이 지출한다.

2) 放送從事者 및 研究問題

(1) 各 放送局은 <韓國 放送文化協議體>의 결정에 따라 各 放送局마다 對北放送의 프로그램 편성과 內容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2) 各 放送局은 <協議體>가 결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협의체>에 의한 자료연구비의 기초위에서 大韓방송연구팀을 구성 상치 기구로 둔다.

(3) 對北放送 編成과 內容을 위한 자료는 <협의체>의 주선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서 또는 구매방법에 의해서 조달한다.

(4) 방송용어의 선택과 表現方法은 <協議體>의 각 分科委員會의 세목결정을 준수한다.

이상과 같이 <韓國 放送文化協議體>는 그 基本目的이 우리의 대내 .대북방송에 있어서의 논리범주의 일치성을 확립하는데 있음은 재삼 강조되어야 할 점이지만, 이로서 각 방송국의 공동출자로 各 放送局이 공통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동일보조로 대북방송을 할 수 있는 기본기준을 잡을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로서 제기되는 장점은

(1) 과거 분산적이며, 객관성과 과학성이 희박한 反共멘탈리티를

<협의체>의 分科委員會에서 여과되어 各放送局에 基本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고.

(2) <협의체> 分科委員會 뿐만 아니라 各放送局의 對北放送 전담 스태프의 新진대사를 可能케 할수 있고.

(3) 對北放送이 研究活動과 連結됨으로서 專門性이 確立될 수 있고.

(4) <협의체>결정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성이 各 放送局마다 제작기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 시킬 수 있고 (이를테면 A 방송은 軍事, B 방송은 社會文化, C 방송은 自由世界紹介等)

(5)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各放送局의 時間配列을 계속성 있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는 欠点으로서는

(1) <협의체>의 구성에서 의견일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2) 민방의 상업주의가 이 <협의체> 구성에 소극성을 야기 할수 있다.

(3) 각방송국의 기존구조 때문에 對北放送專擔 . 팀의 選定에 참신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여하튼간에 최근의 北韓의 對南放送에 대응하는 자세가 만약에 중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北韓이 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大韓民國은 開放社會라는 基本特徵을 對北關係에 있어서 充分히

발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륙대응이라는 명목에서 放送體制를
일원화 하기 보다는 복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
목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재도, 등

